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책 부록 : 친구들 · 2003년 10월호

리아호나

힝클리 대관장 부부와 함께, 32쪽

우리는 …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42쪽

그리스도의 빛, 친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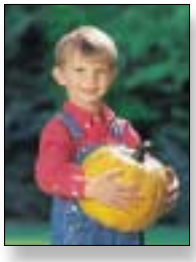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66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 보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평생을 훌륭한 여성과 함께 살며, 자녀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행복하고 능력 있는 개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때에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성공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몇 대의 자동차와 얼마나 큰 집,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질이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 부부와 함께" 참조, 32쪽

4 15239 90320 4
23990 320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 별 책 부 록 : 친 구 들 · 2 0 0 3 년 1 0 월 호

리아호나

표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친구들 표지
모델 사진 촬영: 존 루크

"빨간 털실 스카프" 참조, 18쪽

일반

2 **대관장단 메시지: 영적인 명상**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10 **주님의 타이밍**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18 **빨간 털실 스카프** *흐리프시메 자티크얀 라이트*

25 **방문 교육 메시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26 **예수님의 비유들: 무익한 종** *더블류 롤프 카 장로*

32 **힝클리 대관장 부부와 함께**

38 **말일성도의 소리**
라이언을 위한 노래 *루아나 리시*
단지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욜란다 자야스*
교회에 가 보라 *야담수렌 문크투야*

48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활용하기**

청소년란

6 **머물게 하는 힘** *에이치 로스 워크먼 장로*

22 **질의 응답: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어떻게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30 **그 책** *수위트 사이삼-앙*

42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47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

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꼬마 기관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4 **성전 카드**

6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스도의 빛**
비키 에프 마쭈모리

8 **신약전서 이야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다; 바울이 성신에 순종하다**

12 **노래: 온누리에 손에 손을 잡고서**
재니스 캡 페리

14 **예언자를 보고 싶어요** *사라 브이 올즈*

"영적인 명상" 참조, 2쪽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치심, 월터 레인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교리와 성약 68:25 참조) 여기에 한 아버지가 아들의 숙제를 도와 주고 있다.
또한 그들 곁에는 영적 영양분과 신체적 영양분에 관한 증거물들이 놓여 있다.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제10호
23990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제이 켄트 졸리, 더블류 롤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흐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리차드 엠 롬니
관리 편집인 보조: 마빈 케이 가드너,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편집 스탭: 콜러트 네베커 오운, 수잔 브렛,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샤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샐리 제이 오데커트, 애덤 시 올슨, 쥬디스 엠 팔러, 조나단 에이치 스티븐슨,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죨리 와텔, 킴벌리 웹, 모니카 웍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슨,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탭: 켈리 알렌 프랫,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하워드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케리 린 시 헤린,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비슨, 브래드 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위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턴슨

통 권: 제451호, 제40권, 제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3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랜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샬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그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October 2003 No. 10.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선교사에 관한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저는 열두 살입니다.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고 복음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2001년 10월호에 실린 "당신의 부름"이라는 기사는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각 단계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습니다. *리아호나*와 *친구*들을 출판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책들은 참으로 훌륭한 복음의 동반자들입니다.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로 부스토스,
칠레 푼타 아레나스 스테이크
푸에르토 나탈레스 지부

간증을 나누는 데서 오는 기쁨

*리아호나*는 제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8) *리아호나*는 간증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또 어떻게 한 발 한 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제게 커다란 기쁨이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도와 주는 일은 더 큰 기쁨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란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도록 도운 일에 대한 기쁨일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8:16 참조)

디미투르 니콜로프,
불가리아 플로프디프 지방부
슬리펜 지부

영적인 보화

*리아호나*는 영적인 보화입니다. 이 훌륭한 잡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말씀, 청소년들을 위한 가치 있는 기사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 잘 배려되고 영감을 주는 내용들은 25년 이상 제 삶에 가르침을 주어 왔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이러한 값진 진주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자녀들에게도 그 *리아호나*가 담고 있는 신성한 진리로 영혼을 가득 채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마르셀로 카뇰레스,
칠레 탈카우아노 콜론 스테이크
크루즈 델 수르 와드

애독자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말일에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가에 대해 놀랄 따름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던 해인 1987년 이래로 저는 *리아호나*를 구독해 오고 있습니다. 애독자 편지들을 읽을 때, 참으로 훌륭한 느낌을 받습니다. 전세계에 있는 훌륭한 회원들이 전하는 느낌과 간증은 저를 강화시켜 줍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회원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잡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빅토리노 에프 델라 크루즈 이세,
필리핀 바기오 스테이크
퀘손 힐 와드

영적인 명상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선교 사업의 과정

"선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구도자를 찾고, (2) 구도자를 가르치고, (3) 합당한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고, (4) 새로운 회원과 우정 증진을 하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침례를 준 사람이 향후 5년, 10년, 20년 동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충실하며 헌신적이고도 합당한 회원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일입니다."(1998년 9월 20일, 텍사스 주, 휴스턴 선교사 모임)

선교사에게 구도자를 소개하십시오

"선교사들을 대신하여 저는 성도들에게 선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도록 간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사실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1996년 5월 21일, 한국 부산 노변의 모임)

여러분은 결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몰몬경을 주거나, 메시지를 준 남자나 여자, 혹은 소년이나 소녀가 오늘은 그것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관심을 갖고 이 교회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2002년 3월 22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선교사 모임)

개종

"형제 자매 여러분, [새로 침례 받은 회원들이] 개종을 하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이 위대한 사업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을 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저 논리적인 생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성의 문제이며, 그들이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과, 요셉 스미스는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바로 그분들이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과, 몰몬경이 참되며, 신권이 그 모든 은사와 축복과 함께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성신의 감동을 받는 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것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1996년 11월 8일, 콜롬비아 보고타, 선교사 모임)

교회는 회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회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준은 높습니다. 교회는 확고한

"이 교회는 회원 수가 많기는 하지만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가 육백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혹은 천이백만 명이든, 아니면 오천만 명이든, 개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 스튜어트 엔스티드, 그들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빛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원들이 훌륭하게 봉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무엇인가 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대에 부응합니다. 그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고, 봉사를 하는 동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능력과 이해와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그것들을 더 잘하게 됩니다."(2001년 11월 6일, [호주] 텔레비전 ORF와의 인터뷰)

환영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환영 받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며, 친구를 사귀고, 교회에서 신앙과 충실함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름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2001년 3월 16일, 아루바에서의 모임)

격려의 말씀

"우리는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혼자 있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방법과 문화에 익숙해지는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 따뜻한 미소, 친절한 악수, 격려의 말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냅니다."(1999년 2월 28일, 유타 주 엔사인/로즈 파크, 지역 대회)

그들을 환영하십시오

"[선교사들은] 침례를 준 사람들을 양육하고 도와야 할 책임, 즉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편지를 쓰고, 격려를 해 주는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독, 스테이크장,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은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1998년 1월 10일, 유타 주 우즈 크로스, 지역 대회)

지속적인 양육

"모든 개종자에게는 교회에서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지내고, 질문에 답해 주고, 보살펴 주고,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도록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합니다. 책임이 없다면 그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개종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1998년 1월 10일, 유타 주 우즈 크로스, 지역 대회)

회원들의 영성을 키우십시오

"제가 지금 만약 감독이나 스테이크장이라면 무엇을 할까요? 회원들의 영성을 키우는 일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능력이 닿는 한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이 회복의 사업을 믿는 신앙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그 모두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할 것입니다. 회원들이 경전을 읽고 몰몬경을 읽고 신약전서를 읽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그들이 차분하게, 깊이 생각하며 경전을 읽고, 읽은 것을 숙고해 보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읽도록 권고할 것입니다."(1996년 9월 14일, 오리건 주 유진, 지역 대회)

선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구도자를 찾고, (2) 구도자를 가르치고, (3) 합당한 개종자를 침례 주고, (4) 새로운 회원과 우정 증진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개인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개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비유에서도 개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회원 수가 많기는 하지만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가 육백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혹은 천이백만 명이든, 아니면 오천만 명이든, 개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2000년 2월 25일, *Deseret News*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진실함에 대해 실질적이고 타오르는, 절대적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저의 구세주와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업을 전진시키는 것입니다."(2002년 1월 20일, 유타 주 워싱턴, 스테이크 대회)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여섯에서 여덟 개 정도의 작은 나무나 플라스틱 조각을 모은다. 가족에게 이 작은 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 보도록 권유한다. 그런 다음 개인적인 영성을 쌓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재료들"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그 작은 물건에 이 메시지에서 힝클리 대관장이 제언한 것들의 이름을 붙인다.

2. 처음에 나오는 네 가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가족과 선교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한다.

3. "환영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와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말씀을 읽는다. 가족들에게 새로운 회원을 도와 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개인을 기억하십시오"를 읽고 구세주의 사랑에 대해 간증한다.

4

맨 왼쪽: 사진 촬영: 웰든 시 앤더슨; 기타 모델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머물게 하는 힘

선교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음에도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에이치 로스 워크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께서는 형제님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름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좋은 시간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몇 달 후에는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에 흥미를 느꼈으며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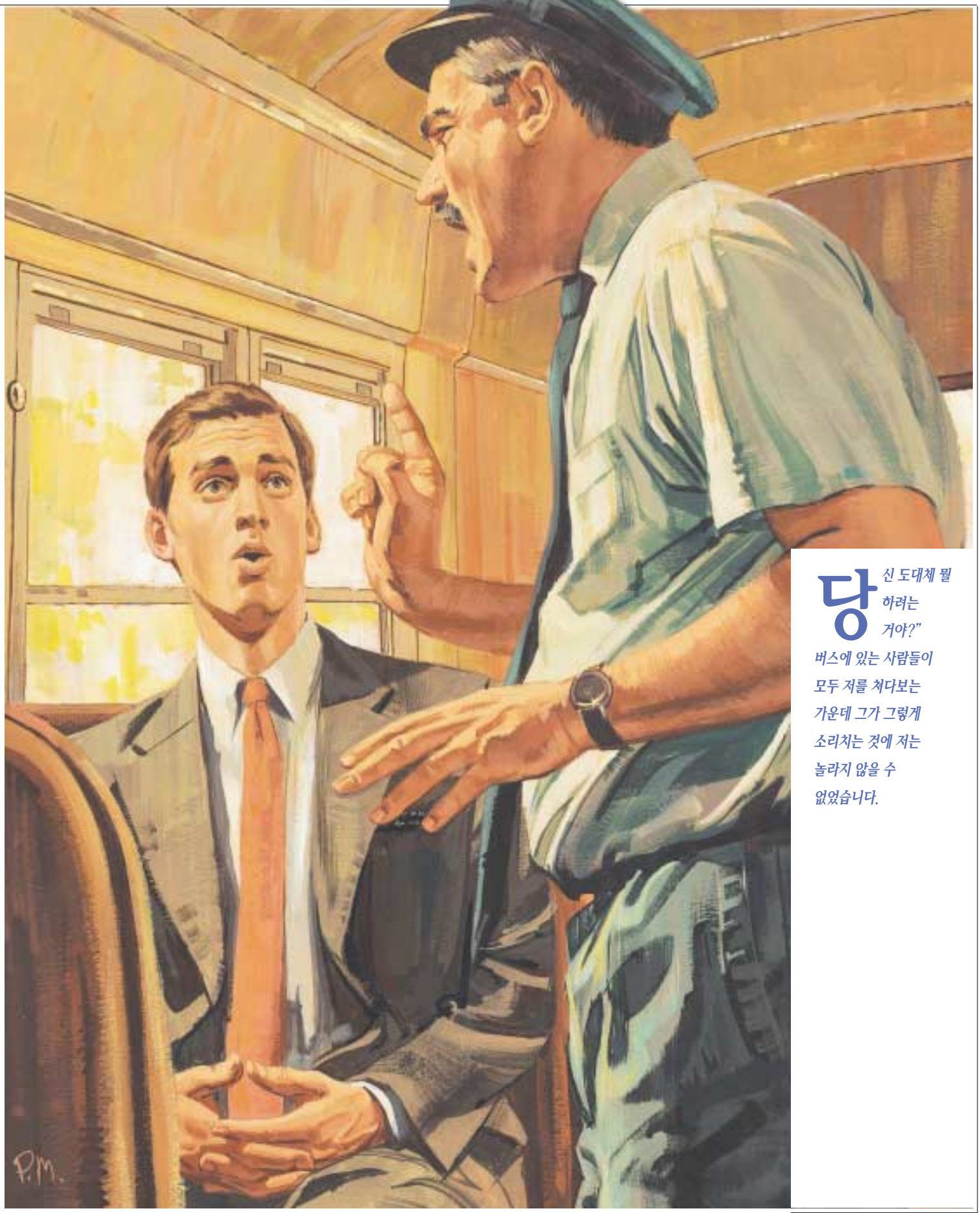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스테이크장님이 제게 다가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님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름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 느낌에 따랐으며 즉시 봉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미국 남부 지역의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어려운 임무에 따르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대학도 휴학했습니다. 결혼도 2년 후로 연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에게 중요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로부터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러 시간 동안 조지아 주 애틀랜타를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두 명의 선교사가 역으로 마중나와 우리를 선교부장님께 안내해 주었습니다. 선교부장님은 잠시 저와 인사를 나누시고는 제게 즉시 버스를 타고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곳에 가면 선교 지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마중나왔던 선교사들이 다시 저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는 제게 주소가 적힌 종이를 한 장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몽고메리에 있는 선교사들이 제가 할 일을 말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 없이 정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승차권을 구입한 후 버스에 올랐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혼자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있는 빈 자리에 앉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등 모르는 것들에 대해 커져 가는 낙담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운전사가 자리에 앉더니, 백미러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 제가 앉아 있는 곳으로 와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가운데 그가 그렇게 소리치는 것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왜



"당신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가운데 그가 그렇게 소리치는 것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 사업의 진정한 성공은 도표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너로 인해 삶이 영원히 변화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네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새겨져 있느냐에 의해 측정된단다. 네 간증을 자주 나누어라. 나는 순수하고 단순한 간증을 전하는 것보다 선교사에게 더 큰 힘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단다. 네가 전하는 간증이야말로 네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개종하는 데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용기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여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선교 사업을 하는 아들에게", *Ensign* 1991년 11월호, 43쪽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그냥 버스 타고 있는데요."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혹시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 아냐?" 하고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버스 바닥에 있는 흰 선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 선 앞으로 나와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버스에서 쫓아낼 태세였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즉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그 당시의 그 흰 선이 백인과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구분하는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백인과 흑인을 구분 짓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아마도 버스 기사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여러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오면서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수치심을 떨쳐 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몽고메리에 도착했을 때, 떨리는 제 손은 여행 가방을 들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버스는 밤 늦게 도착했으며 정류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이라고는 고작 애틀랜타에서 선교사들이 적어 주었던 주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기사를 깨워 종이에 적혀 있는 주소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짜증스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요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말했으며 저는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90미터도 채 못 가서 "다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금을 챙긴 후, 조그만 흰 색 집 앞에 저와 짐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한 선교사가 졸린 눈으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누구시죠?"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그 곳에 왔는지 말하자, 그는 제가 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시 받은 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음에도 그는 "당신이 잘 방이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저를 계속 현관에 세워 두었습니다.

"장로님, 저보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선교부에서 보낸 대로 이 곳으로 왔고 갈 데가 없어요."라고 제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는 부엌 바닥에서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자기 침실로 사라졌습니다. 그처럼 외롭고 푸대접 받고 실망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지저분한 바닥에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문가에 서서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조금 전 떠나 온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 곳으로 가서 집으로 가는 승차권을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딱 그 정도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는 모든 기쁨과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다시 예전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며, 복학도 하고 가족을 만나고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이 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네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널 원치

않아.”

그런 다음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처음에 내가 왜 이 곳에 왔지?” 스테이크장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님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저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결혼도 미루고, 직장도 그만두고, 대학도 휴학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가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지역에 왔을 때 그것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때 강한 느낌을 갖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신성한 확신이 필요한 지금 그 느낌은 먼 추억처럼 여겨졌습니다.

전임 선교사로서의 저의 시작은 예상 외로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아파트의 그 어두운 창가에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 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토록 분명하게 선택에 대해 인식했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아들인 부름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선교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 결심을 하고 나자 선교 지역에 도착한 이래 처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인 뒤에라야 주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얻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선택의 축복들에 대해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

저는 여행 가방을 지저분한 바닥에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문가에 서서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타이밍

우리 삶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옳은 일을 제때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위해 준비하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잘 처리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즉 우리가 받는 것들을 이용하고, 잃은 것들로 인해 오는 낙담을 극복해 나가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 해 전에 저는 어느 대학 총장 취임식에서 타이밍(시기를 보아 좋은 때에 맞춰 행동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대학 총장은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막 임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현명한 총장은 친절한 태도로 젊은 후임자에게 봉인된 세 개의 봉투를 건네주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것들을 갖고 계시다가 임기 중 첫 번째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거든 이 첫 번째 봉투를 열어 보십시오. 유익한 충고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총장은 1년도 안 되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개봉했을 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는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전임 총장을 탓하시오." 그는 그 충고에 따랐으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2년 후에 그는 지도력에 대한 다른 심각한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봉투를 개봉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경영 관리를 재조직하시오." 그는 그렇게 했으며, 재조직은 위기를 진정시키고 지도력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총장은 시간이 제법 흐른 후에 세 번째 중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알려 줄 충고의 말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봉투 세 개를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타이밍이 전부다"라는 말은 물론 타이밍의 중요성을 실제보다 과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타이밍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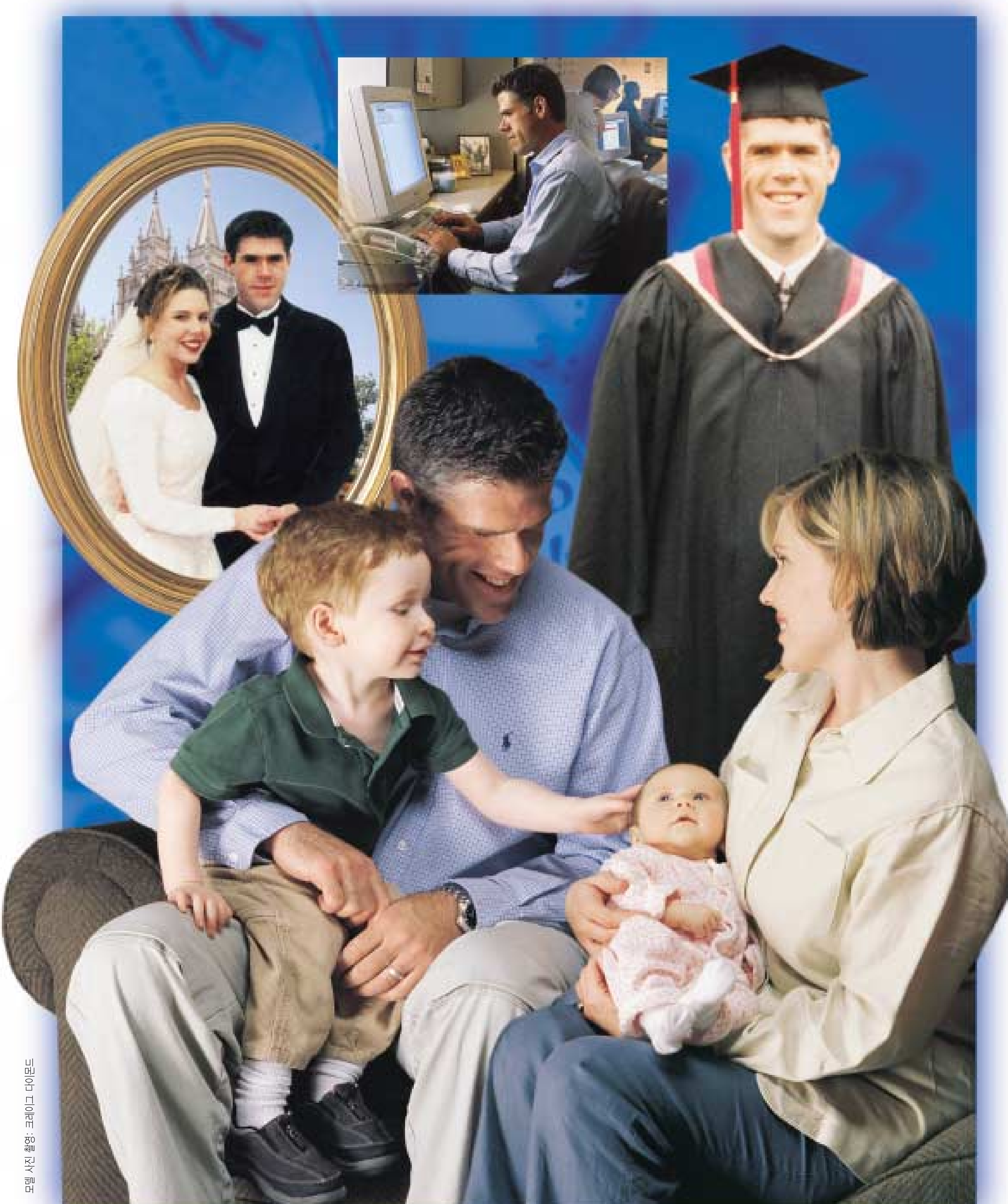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전도서 3:1~2, 4~5, 7)

우리 삶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모델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옳은 일을 제때에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하는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잘못된 것이 그들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타이밍이 그렇게 되어서 발생한 것인 때에도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타이밍

타이밍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주님은 자신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 경륜의 시대의 초기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말은 분명하며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 그러나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느니라."(교리와 성약 64:31~32)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뢰, 즉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대신 우리의 것을 강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지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재림과, 또한 단순히 그분의 전반적인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타이밍에서 개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입니다."[1]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타이밍을 믿는 완전한 신뢰 없이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못지 않게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이밍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지상 성역과 뒤이어 그분의 사도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을 가르치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마태복음 10:6; 마태복음 10:5; 15:22~26 참조)을 가르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 지시 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사도 베드로에게 위대한 계시가 주어짐으로써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시기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사도행전 10~11장 참조)

추가로 성전을 짓는 일은 항상 있어 온 지시 사항이었습니다만 주님의 예언자가 이것을 주요 발의 안건으로 신호를 보낼 때까지 어느 누구도 교회와 그 회원들을 위해 그토록 급작스럽고 극적인 증가를 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에서 보듯이 계속되는 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타이밍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계시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의 후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새 예루살렘 성의 건설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2~4 참조) 그러나 이 일에서 타이밍은 주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성전 부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 대역사를 위한 기초를 놓도록 승인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에서도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준비합니다. 주님의 타이밍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주님은 다음 단계를 밟을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현재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된 일에만 열중할 따름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시간 안에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리와 성약 88:73)

계속되는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오래 일을 함으로써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복수 결혼이 그 한 예입니다.

왼쪽: 사진 촬영: 에이스 플레스, 브라질 레시페 상전; 오른쪽: 그림: 헤리 앤더슨, 고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쳐라

주님의 타이밍의 중요성은 음식에 관한 율법에서도 증명됩니다.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음식에 관한 한 가지 지시 사항을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말일에" 있을 "악과 음모"(교리와 성약 89:4)로 인해 우리 시대에 맞는,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축복이 수반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은 또한 개인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에도 적용됩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위대한 말씀은 특정한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교리와 성약 88:68)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계시[2]와 우리 생애의 모든 중요한 사건, 즉 출생, 결혼, 죽음 및 심지어는 우리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타이밍이 맞아야 하며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 주님의 종들에 의해 계시된 바와 같이 우리의 행동을 그분의 시간표에 맞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새로운 성전의 수를 크게 늘리는 계획, 즉 특별히 운영하는 50개의 성전을 불과 수년 내에 100개로 늘리는 건축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추가로 성전을 짓는 일은 항상 있어 온 지시 사항 이었습니다만 주님의 예언자가 이것을 주요 안건으로 제의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교회와 그 회원들을 위해 그토록 급작스럽고 극적인 증가를 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예언자만이 불과 수년 내에 성전의 수를 두 배로 늘려 운영하도록 교회에 제의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저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타이밍에 따르는 일의 중요성에 관한 또다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3]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 그분의 사업이므로 그 일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그분의 타이밍에 맞추어

타이밍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지상 성역과 뒤이어 그분의 사도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소망하는 결과는 추가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행해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할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와 사람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주기를 바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과 지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충만한 진리와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룹이나 개인이 준비되어 있는 때를 아시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도록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시간표에 유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지

우리가 생애에서 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일은 주님의 타이밍 이상의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개인적인 목표의 성취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대학 연령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특별히 중요한 문제, 즉 선교사 침례와 결혼에서 나타납니다.

2001년 여름에 저는 아내와 함께 브라질 마나우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에 있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약 100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저는 대개 그러한 경우에 사용할 메모를 준비해 둡니다만, 그것 대신에 지금 제가 논의하고 있는 경전의 말씀과 원리들, 즉 타이밍의 중요성에 관해 말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계획의 일부는 다른 사람의 선택의지와 행동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선교사는 다른 다섯 사람의 선택의지 없이는 이 달에 다섯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소망하는 결과는 추가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선교사의 목표는 선교사 개인의 선택의지와 행동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지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선교사들에게 목표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아닙니다. 그 대신 저는 타이밍의 원리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적용 사례를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예를 들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의 적용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많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것들 중에는 반드시 환영할 만한 것들이 아닌 것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의로운 것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했던 때가 아닌 다른 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즉시 결혼을 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절해 보이는 때에 하는 결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 크리스틴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녀는 선교 사업과 졸업 후에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의 타이밍은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계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중요한 사건들, 즉 다른 사람의 선택의지나 주님의 뜻과 타이밍에 의존해야 하는 일들처럼, 결혼은 확신을 갖고 기대하거나 계획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소망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 시기를 훨씬 넘겨 독신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결혼의 타이밍은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계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의지나 주님의 뜻과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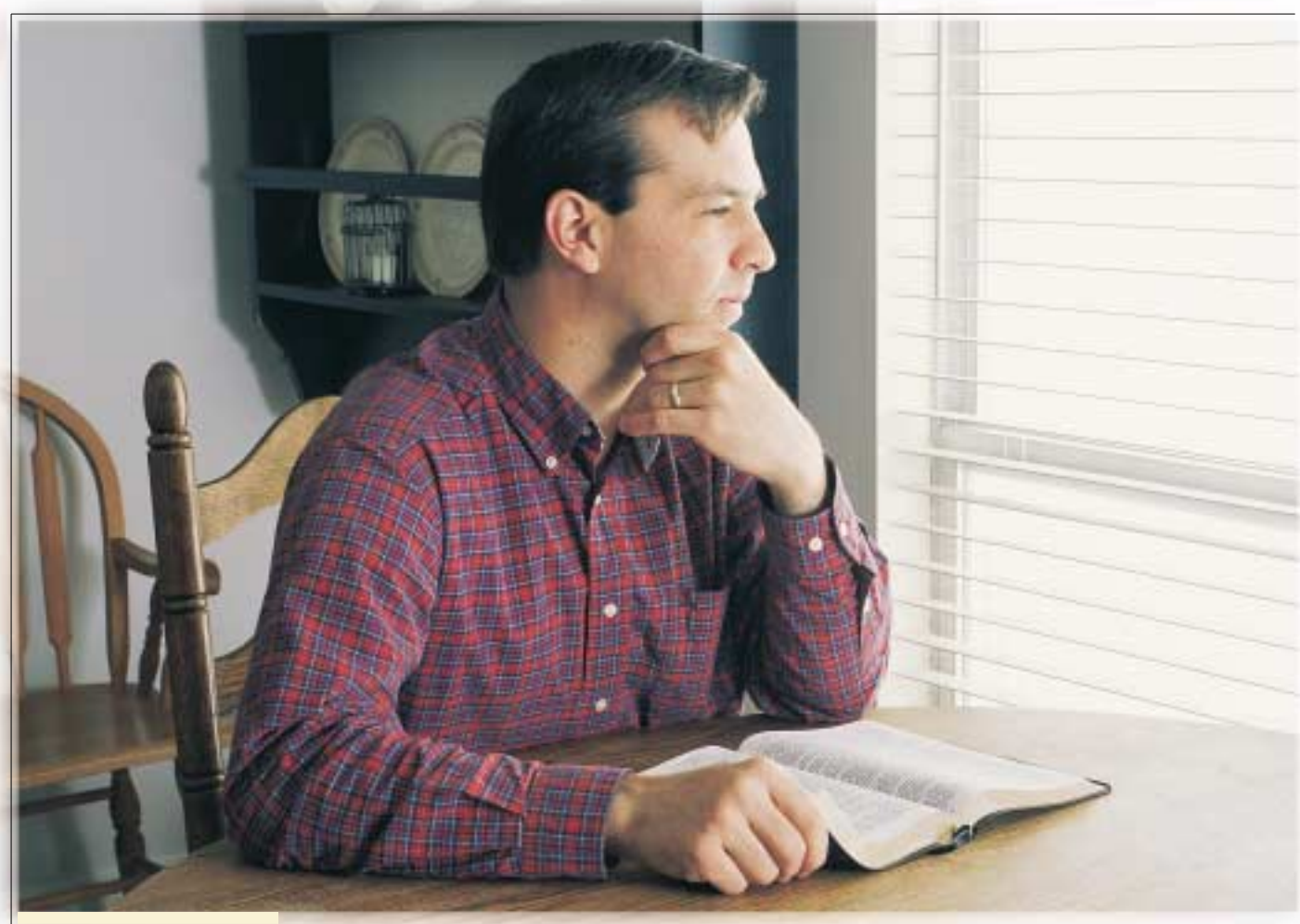
그렇다면 그 동안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위해 준비하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잘 처리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즉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용하고, 잃은 것들로 인해 오는 낙담을 극복해 나가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그러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의지나 주님의 타이밍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 우선 순위와 표준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며 그러한 결심을 충실하게 지속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평안을 주는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결심과 표준은 일관될 수 있습니다.

독신 성인들의 결심과 봉사는 올바른 때와 올바른 사람을 기다리는 어려운 시기를 통해 그들을 강하고 충실하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는 결심과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는 분들은 현명한 분들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주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통제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결심한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심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자신의 계획이 주님의 타이밍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고 충실하게 지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결심하는 것과, 졸업을 하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첫 직장에서 최소한 얼마 정도의 돈을 벌어야 결혼할 것이라고 계획하는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결심을 하며 그분을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우선 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사사 건건, 심지어는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없으며, 거절당한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매우 중요한 어떤 일들이, 우리가 계획했거나 소망했거나 기도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왼쪽: 사진 촬영: 스코트 웰티; 오른쪽: 모델 사진 촬영; 웰든 시 엔더슨



영원한 원리 안에서 강하고 충실하며,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든 그러한 원리 위에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고 영원한 결과에 대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주님을 첫 번째 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들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감독으로 부름을 받든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든, 결혼을 하든, 독신이든, 혹은 여러분이 내일 세상을 떠나게 되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기본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과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인생에는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 행로를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선교사로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950년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수 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으며 미국은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저는 열 일곱 살이었지만 유타 주 방위군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원되어 실전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저와 제 또래의 다른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던 선교 사업을 그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9년 동안 브리감 영 대학교의 총장직을 수행한 뒤 해임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유타 주지사는 저를 10년 임기로 주 대법원에서 일하도록 임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마흔여덟 살이었습니다. 제 아내 준과 저는 남은 인생을 계획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어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대법원에서 20년간 근무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임기를 두 번 마치고 나면 예순아홉 살이 되는데, 그 때 대법원에서 은퇴를 한 뒤 선교사 서류를 제출하고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69회 생일을 맞이하며 그 중요한

계획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일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다면, 저는 아내 준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계획과 타이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대법원 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차이들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순 여섯이 되었을 때 아내 준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후에 저는 현재 제 곁에 있는 영원한 동반자인 크리스틴 맥메인과 결혼했습니다.

제 인생은 계획했던 것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인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주님을 첫 번째 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께서 제게 어떤 일을 원하시든 행하겠다고 한 결심은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내의 회복을 위해 드린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만 주님은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증거를 주셨으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죽고 2년이 지난 후에 저는 지금의 제 영원한 아내인 훌륭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또한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일,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계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불가피하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계획과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물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견뎌 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영원한 원리 안에서 강하고 충실하며,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든 그러한 원리 위에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고 영원한 결과에 대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영원한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필멸의 생은 영원 가운데 단지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 즉 우리의 행동과 소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합당한 권능에 의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성약과 의식을 통해 확인되는 행동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합니다. 예언자 앰율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앨마서 34:32) 그 사실은 우리가 긴 안목을 갖는 데, 즉 영원에 대한 타이밍을 받아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주님을 첫 번째 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들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타이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준을 세우고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Even As I Am*(1982), 93쪽.
2. 댈린 에이치 옥스, "영으로 가르치고 배움",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14쪽 참조.
3.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10쪽 참조.

2002년 1월 29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인 말씀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1. 가족에게 그들이 실제로 교회에 들어오거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한 것보다 몇 년 정도 일찍 혹은 늦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에 관해 토론하도록 권유한다. 차례로 돌아가며 "주님의 타이밍" 편을 읽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준비한 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지 말한다.

2. 가족 한 명에게 어떤 물건을 집거나 종이에 글씨를 쓰는 일을 지명한다. 그런 다음 그 또는 그녀가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선택의지와 행동이 하는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지"와 "우리 생활에의 적용"편을 읽는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경험을 나눈다.

왼쪽: 사진 촬영: 제드 에이 클라크; 오른쪽: 모델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본드

빨간 털실 스카프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배우면서 성장했지만, 지진과 두 명의 선교사가 그분을 찾도록 도와 주었다.

흐리프시메 자티크얀 라이트

나는 아르메니아가 소련 연방에 속해 있을 때 그 곳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나와 두 명의 형제 자매에게 정직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라고 가르치셨으며, 또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하셨다. 그러나 내가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배웠던 것들 중 하나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아편과 같이 해롭다는 개념이었다. 열두 살이 될 때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에 복이 있나이다

내가 열두 살 때, 참혹한 지진이 일어나 내 고향의 90퍼센트가 부서지고 5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 때 나는 학교에 있었는데 굉음이 점점 더 커지더니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 속으로 떠밀려 들어간 나는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애썼다. 커다란 혼란 속에서 갑자기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께서 빨간 털실로 만들어 주신 스카프가 계단의 오른편에 있는 넓은 복도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느낌에 이끌려 나는 사람들 속에서 빠져 나와 스카프를 집으러 갔다. 그 순간 땅이 다시 흔들렸으며, 나는 계단이 무너져 친구들이 그 잔해 속에 깔리는 것을 목격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와 빨간 털실 스카프가 있던 그 좁은 장소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온통 폐허가 되어 있었다.

우리 다섯 식구는 모두가 살아 남았다.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일곱 시간 동안 찾은 끝에 길거리 한복판에 앉아 있는 엄마와 여덟 달 된 여동생, 일곱 살 된 남동생과 나를 보셨을 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에 복이 있나이다."라는 말뿐이었다. 우리는 집을 잃었으나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집에 있는 느낌

그 후로 11년이 흘렀다. 나는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그 곳에서 안과 전공의로 있었다. 얼마간의 자원 봉사를 하는 동안에 나는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집에 오는 것을 환영했으나 이내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종교"를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내게 말했다.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으나 그 선교사들의 눈에 무엇인가 청순하고, 순수하고, 숭고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을 끊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신 후에 나는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피했으며, 그러다가 토론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말하기 위해 결국 교회에서 선교사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시간 한 시간 전에 도착한 나는 많은 의자들과 15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앉으면서, 나는 뭔가 색다르지만 믿기

어려울 만큼 익숙한 느낌에 깜짝 놀랐다. 마치 내가 다섯 살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또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으며 집으로 달려가 엄마를 껴안고 내가 한 일들을 말할 수 있었던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랜 동안의 영적인 방황 끝에 나는 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날 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면, 내게 응답을 주시고, 선교사들이 내게 가르친 것들이 참됨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토록 특별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를 보여 주시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그토록 생생하게 느껴 본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다. 그분은 항상 그 곳에 계셨다. 나는 비로소 길을 찾았다는 깊은 확신을 갖고 그 날 밤 잠이 들었다.

나는 복음을 매우 주의 깊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여러 달에 걸쳐 열심히 공부한 끝에 나는 침례를

나는 사람들 속에서 빠져 나와 스카프를 집으러 갔다. 그 순간 땅이 다시 흔들렸으며, 나는 계단이 무너져 친구들이 그 잔해 속에 깔리는 것을 목격했다.

위: 침례식 날에 흐리프시메(오른쪽)는 홀로 교회로 갔다. 앤더슨 자매(왼쪽)를 포함하여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다. 마지막 순간에 흐리프시메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도착했다. 아래: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의 자티크얀 자매.

받기로 결정했다.

곧 내 생활에서 많은 나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직장을 잃었고 전공의 생활을 그만두어야 했다. 내 관심사와 가치관들이 변하기 시작하자, 정든 친구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께서 나의 침례에 반대하신다는 점이었다.

나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했다. 그 분들은 내게 가장 훌륭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분들은 내가 달성한 것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러나 그 분들은 내 결정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으셨다. 그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신 일을 내가 하려고 했던 때는 그 때가 처음이었으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침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내 가족들이 침례식에 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침례식 날 나는 혼자서 교회로 갔다. 침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나는 나의 유일한 "가족"은 두 명의 선교사들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침례탕으로 가려고 몸을 돌릴 때 어머니와 남동생이 보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내 가족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마치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으며, 보다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내게 가져다주었다.

복음의 빛을 나눔

이듬해에는 축복이 가득했다. 지부에서의 책임 및 많은 자원 봉사와 더불어 나는 개인 병원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교육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 내 침례 후에 어머니께서는 여러 차례 교회 모임에 오셨으며 다섯 달 뒤에는 교회에 들어오셨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생활 속에서 느꼈으며,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확신을 갖게 된 점이었다.

나는 복음이 내 생활에 가져다준 빛을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침례일로부터 정확히 일 년 후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선교사 추천서를 보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기를 바라면서 내 결정에 관해 말씀드렸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화를 내셨다. 나는 밤새 내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일이 끝난 후 나는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내 작업장으로 들어오셨을 때 나는 계속 일만 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정말로 가정, 친구, 교육, 일자리 등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게냐?"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말 후에 우리는 내가 선교 사업을 떠나는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후 10여 일이 쏜살같이 흘러 떠날 날이 다가왔다.

여분의 몰몬경 한 권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러 떠날 때 어머니와 여동생은 교회 회원이었다. 여섯 달 후에 어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적어 보내셨다. "집에서 여분의 몰몬경 한 권을 찾았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몰몬경을 제 자리에 두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신단다. 가슴이 뛰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단다." 내가 떠나고 난 뒤, 아버지께서 길에서 선교사를 만나 선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는지, 어떤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일정은 어떤지를 물어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분은 이 교회가 내게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했던 이유를 알고 싶으셨던 것이었다.

선교사로 떠난 지 여덟 달 만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첫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적으셨다. "2000년 12월 2일에 침례를 받았단다. 조금씩 조금씩 복음에 관해 배우고 있다. 나는 네가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 길로 들어서게 해 준 내 딸이 너무도 자랑스럽구나." 내가 선교 사업을 마칠 무렵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개종했고,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도 교회에 들어오기로 결정했다.

흐리프시메 자매가 귀환할 무렵 모든 식구들과 많은 친구와 친척들이 침례를 받았다 (맨 위); 그 중 한 사람인 그녀의 부친(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 길로 들어서게 해 준 내 딸이 너무도 자랑스럽구나."라고 편지에 적었다.

빛 속에서의 생활

내가 배운 진리로 인해 나는 의미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알고 계심을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이 내게 가르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알고 있다. 내가 처음 만난 선교사들의 눈에서 빛나던 빛은 바로 내가 처음으로 집회소를 방문하여 집에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빛이다. 그것은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의 눈에서 내가 보았던 그 빛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전에서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교리와 성약 88:67)라고 묘사한 그 빛이다. ■

흐리프시메 자티크얀 라이트는 솔트레이크 유니버시티 제1스테이크, 솔트레이크 유니버시티 제3와드의 회원이다.

왼쪽: 사진: 코린 포터 곤트, 선교사로 봉사할 때의 자티크얀 자매; 다른 사진은 저자 촬영

질의 응답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어떻게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호나의 대답

아론 신권은 소신권이며 "천사의 성역의 열쇠와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이 복음은 회개와 침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교리와 성약 84:26~27) 대신권은 구약전서에 나오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이름을 따랐으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교리와 성약 84:19) 지니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은 더 높은 의식을 집행하고 영적 축복을 베풀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후의 여러분의 경험은 집사, 교사, 제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집사는 성찬을 전달하고 금식 헌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성찬을 준비하고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침례를 베풀고, 성찬을 축복하고 또다른 제사와 교사 및 집사를 성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아론 신권의 책임들도 모두 영적 활동이기는 하지만, 멜기세덱 신권의 의식과 의무는 본질적으로 좀더 영적입니다. 따라서 대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고 신권 축복을 주는 일과 같은 큰 책임들에 대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아론 신권의 의무를 부지런히 완수하고 여러분이 받은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준비에서 큰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준비에는 여러분을 구세주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그분의 신권이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 바로 그분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도, 금식, 경전 공부, 그리고 세상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아론 신권의 의무들을 완수하는 것을 배우는 일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데 있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준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대신권에 대해 준비하면서 모든 면에서 합당하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운다. 멜기세덱 신권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

신권으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기도, 금식, 경전 공부, 계명을 지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다.

독자들의 대답

아론 신권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더 많은 책임들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재 지니고 있는 아론 신권의 책임들을 완수해야 합니다.

모델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오이운수렌 반디, 20세,
몽골리아 울란바토르 북 지방부,
올드 다르칸 지부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모두에서 한결같은 것은 봉사의 개념입니다. 신권은 봉사입니다. 아론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갖게 되는 좀더 큰 봉사를 위해 신권을 합당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줍니다. 준비하기 위해, 교리와 성약 84편을 공부하십시오.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충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제프리 저딘 장로, 21세,
아르헨티나 살타 선교부

여러분이 아론 신권에서 지닐 수 있는 책임과 경험은 놀라운 것이며, 우리가 느끼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신권을 통해서 우리는 좀더 성숙되고 책임질 수 있게 되며 더 큰 사랑과 기쁨과 선함을 느끼게 됩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 우리는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존 루이 암브로시오, 18세,
이탈리아 카타니아 지방부, 카타니아 제1지부

세미나리와 다른 공과반에 참석하는 것이 제가 대신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교리와 성약 13, 20, 84, 107편을 공부했습니다. 이 성구들은 두 신권에 관해 좀더 넓은 지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신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이 제 인생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커집니다.

움베르투 마르틴스 데 아라우주 주니오, 22세,
브라질 파울리스타 올린다 스테이크
카에테즈 제1와드

공부하고, 기도하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 인간을 가르치리로다"(니파이이서 28: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리안 바브켄, 18세,
아르메니아 예레반 지방부 코미타스 지부

사랑에 찬 봉사를 통해 신권을 행사하고 또 제사로서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멜기세덱 신권에 관련된 일을 행하고 또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베니 시 스미스 장로, 20세, 칠레 산티아고 동 선교부

신권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며, 따라서 합당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라는 구세주의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닉 케메조프, 18세,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방부,
카르키프스카 지부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신권을 통해 몇 가지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과 같은 의식들은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집행됩니다. 아론 신권의 책임들을 완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베르스 라울 알바레즈스코메사나, 23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웨스트 스테이크 몬테비데오 제10와드

청남의 인생에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것보다 더 성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책임들은 더욱 크지만, 우리가 책임들을 영화롭게 한다면 축복도 마찬가지로 큽니다. 준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이세스 네피 모랄레스 곤잘레스, 17세,
페루 벤타닐라 스테이크 나발 와드

우리도 아론 신권을 지닌 어린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힐라맨의 젊은 이천 용사들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이며, 여러분도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방어하는 힘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스러운 성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고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7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에게: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성명, 나이, 주소, 그리고 와드 및 스테이크명(또는 지부 및 지방부명)과 함께 보내 주십시오. 자신의 사진 한 장도 동봉해 주십시오. 2003년 11월 1일까지 도착되도록 다음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 우편을 통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and Answers 11/03,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전자 우편* cur-liahona-imag@ldschurch.org.

질문

"여러 해 전에 저는 어떤 유혹들을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이제까지 그 유혹들에 대항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저는 거듭해서 같은 유혹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저의 결심을 인정하시고 그 유혹들을 없애 주시지 않으실까요?" ■

교회 소식과 친구들 다음에 *리아호나* 25쪽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앨마서 34:32: "보라 이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1915~1994), 십이사도 정원회: "열 처녀[마태복음 25:1~13 참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의 개인적인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책임은 개별적인 요건이며 기회입니다. 영적인 준비라는 기름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 비유에서는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살 수가 있었으나 우리의 생활에서는 의로운 생활에 의해 한 번에 한 방울씩만 기름이 쌓이게 됩니다."("A Time of Urgency", *Ensign*, 1974년 5월호, 36쪽)

해롤드 비 리 대관장(1899~1973):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오래 회개를 미루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와 기회와 장애를 고려하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 후에 의미 있는 노력으로 그의 인생을 채우는 사람들은 의로운 심판의 날에, 심각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잃는 것만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229쪽)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최후의 심판은 단순히 선행과 악행의 총합, 즉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의 최종 결과, 즉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에 대한 판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통과 의례를 치르듯 외형만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요구되는 계명이나 의식이나 성약들은 하늘의 어느 예금 계좌에 적립해야 할 예금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 주는 하나의 계획입니다."("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0쪽)

앨마서 5:28: "보라 너희는 교만을 던져 버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

모로나이서 7:47: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되리로다."

앤 시 핑그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작고 단순하지만 순수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한 번에 *한 가족 한 가정씩*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사랑에 찬 행동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정의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각오를 지닌 여성이 되게 합니다."("사랑: 한 번에 한 가족 한 가정씩",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08, 110쪽)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895~1985):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밤중에 자신들의 등잔에서 의로움의 기름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잔치에 앉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 257쪽)

- *우리의 등잔의 기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45:56~57 참조)*
- *우리는 더 사랑에 차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그림: 월터 레인,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일부

무익한 종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신앙과 충실함에 관해,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우리의 행함 사이의 관계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더블류 롤프 카 장로
칠십인 정원회

유타 주 북부의 가족 농장에서 네 아들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저는 지혜롭고 사랑에 차고 또 앞을 내다보시는 부모님으로부터 값진 교훈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하고 또 "모든 승리와 영광은 [우리의] 근면과, 충실과,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교리와 성약 103:36) 진다는 점을 말과 행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의 성역을 완수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신앙과 충실함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새로운 한편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누가복음 10~19 참조)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에 압도되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누가복음 17:5)라고 간청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교리로 여겨질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 그들에게 더 많은 것, 즉 신앙과 충실함에 관한 한 가지 비유를 주심으로써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에 관한 그 비유에서 우리는 농장 생활의 이미지, 곧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담긴 원리는 그 비유가 주어질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종과 주인

예수께서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누가복음 17:7)라는

뒷면: 그림: 잔마만, 예수와 어부들의 일부 © QUEBECOR PRINTING; 배경: 삽화: 게리 엘 랩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으며 피고용자라기보다는 노예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필요로 하는 일들, 즉 곡식을 심고, 양을 돌보거나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드는 일과 같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주인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구세주께서 질문을 계속 하셨습니다. "…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7~8절) 종의 의무는 주인의 필요 사항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인이 식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니라]"(9절)라는 질문에 답을 담아 비유를 끝맺으셨습니다. 종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 감사를 받으려 기대해서는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종은 단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한 것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이 비유의 요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10절) 주님께서 종의 모든 필요 사항들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종의

예수님의 시대에 종들은 주인이 필요로 하는 일들, 즉 곡식을 심고, 양을 돌보거나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드는 일과 같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주인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수고는 그가 주인에게 빚진 것과 이미 그의 의무가 된 일에 대한 수행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신앙과 충실함, 즉 제가 소년일 적에 농장에서 배우기 시작한 원리들에 관해 가르치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충실함과 용기의 원리

농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네 명의 소년을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충실함은 기대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지시 받기 전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축을 먹이는 것은 건초, 곡식, 저장 목초를 구유에 던져주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건초를 매는 끈, 흩어져 있는 건초 찌꺼기, 떨어진 낱알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일은 울타리와 문을 점검하고, 가축들의 잠자리를 청소하고 거기에 풀을 깔아 주고, 또 아프거나 다리를 저는 동물들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밭을 가는 일은 트랙터를 밭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전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는 쟁기를 올바르게 장착하고, 울타리와 배수구 둑 근처까지도 포함하여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기계를 유지 보수하고, 도구와 장비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 농장에서 용기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그저 먹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가르침을 받고, 느낌과 경험을 나누며,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단순히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깨끗이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단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침대는 그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매일 정리하고 매주 바꾸어 주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접시는 그저 먹을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닦아서 찬장에 올바르게 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매와 채소는 마음대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깡통과 병에 담거나 냉동시켜야 했습니다. 집안 일들은 우리 소년들이 해야 했던 일들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행할 가치가 있는 일은 잘할 가치가 있다."라는 오래된 격언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족 농장에서 용기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나타내는 표준에 따라 수고하는 것이며 또 실질적으로도 기대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농장에서의 긴 하루의 수고가 끝난 후에도, 아버지께서는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수행하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농장 일과 신권 책임에서 남편을 돕는 일 이외에도 와드와 스테이크 부름에서 자신이 맡은 막중한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충실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분들은 용기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일부 교회 회원들이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충실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피력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들은 "십일조를 온전하게 내는 것이 어려워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기가 힘들어요." 또는 심지어 "말일성도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행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6:60 참조)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몫이 어렵다거나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구세주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은 과거에 그분의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요한복음 6:67)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대함과 자비를 인식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한복음 6:68~69)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교리에조차 충실해야 하는 것이 구세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자질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또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저 노동 윤리 이상의 것임을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하늘에 계신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에 관한 문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앙과 은혜의 원리

소년 시절에 농장에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과 부모님에게 빚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앰율레크가 조램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아침 낮 밤으로"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앨마서 34:19~27 참조) 가족 및 개인 기도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추수하시는 주"(앨마서 26:7 참조)를 믿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과 행동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밭을 갈고, 농작물을 심고, 물을 대고, 경작한 후에 나머지 결과를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지만 햇빛과 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에 찬 부모님의 은덕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과 의지가 바로 베냐민 왕이 다음과 같은 말로 가르친 바입니다. "비록 너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너희를 창조하[신] …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 너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이니라 … 너희에게 묻거니와, 이제 너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노니,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땅의 티끌 만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느니라."(모사이야서 2:20~21, 25)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 곧 우리의 의무를 지킬 때 그분은 즉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빚을 지게 되고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의 용기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 비유에 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대함[또는 은혜]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의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반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행해져야 할 일에 관한 하나님의 표준을 낮춤으로써 신성한 관대함이 나타나서도 안 된다. 그보다는 많이 주어지고 또 많은 것이 행해질 때,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관대함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행했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38]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관대함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행할 때,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그것도 기쁘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1]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구세주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신앙과 충실함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용기와 은혜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되어 최소한의 기대치 이상을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

주

1. *Even As I Am*(1982), 86쪽.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 곧 우리의 의무를 지킬 때 그분은 즉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빚을 지게 되고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의 용기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삽화: 게리 엘 캡

그 책

나는 그 책을 오랫동안 무시했었다. 그러나 그 책을 펼쳤을 때, 그 책은 결국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수위트 사이삼-앙

나에게는 그 파란 표지의 책을 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책을 펼쳐 읽었을 때 행복한 느낌이 들었고 더 읽고 싶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내가 태국의 콘카엔에 있는 대학 기숙사로 이사했을 때 방 한 구석에 파란 표지의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책에 손대지 않았으며 그 책은 여러 달 후에 내가 기숙사를 떠날 때까지 그 곳에 계속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나는 고향 카라신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친구 집을 방문하고 있을 때, 텔레비전 위에 있는 파란 표지의 책을 보았다. 그 책은 내 기숙사 방에 있던 책을 생각나게 해 주었다. "어디서 저 책을 얻었지?" 내가 친구에게 물었다. 그는 선교사들이 주었다고 말했다. 나는 비슷한 책을 본 적이 있지만 한 줄도 읽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 친구도 그 책을 읽은 적이 없었다.

그 책을 집어 결국 표지에 적힌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란 말을 읽었다. 그런 다음 책을 아무 데나 펼쳤고 야곱서 5장에 이르러 가꾼 감람나무와 들 감람나무에 관해 읽기 시작했다. 그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읽으면서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책을 빌리러 친구 집으로 다시 갔다. 도착했을 때 내 친구는 두 명의 선교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레이드 장로와 해롤드슨 장로라고 소개하고는 나와 만날 약속 시간을 정했다. 그들은 약속된 대로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관한 믿음을 전해 주었다. 그들이 말할 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권유에 응해 나는 일요일에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비록 열 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는 카라신 지부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1999년 3월 21일에 침례를 받았으며 곧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침례를 받고 나서 두 달 후에 누나 또한 간증을 얻어 침례를 받았다. 한 달 후에는 사촌이 침례를 받았다. 회원들의 도움으로 우리 작은 지부는 곧 회원 수가 세 배가 되어 30명이 정규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침례 받은 지 일 년 후에 나는 태국의 방콕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누나 또한 같은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내가 주님의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 행운이나 우연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그분께서는 내가 "그 책"을 처음 펼쳐 그분의 포도원에 관해 읽었던 날부터 나를 선교사로 준비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포도원 속으로 들어가 내 형제 자매들을

찾음으로써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책과 복음을 나누게 된 일은 참으로 훌륭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

수위트 사이삼-앙은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타이 콘카엔 지방부 카라신 지부의 회원이다.

삽화: 그렉 뉴볼드

힝클리 대관장 부부와 함께

마조리 페이 힝클리 자매가 말일성도 회중에게 말씀하기 위해 연단에 서면 사람들은 금방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매력적인 유머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인 것처럼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또한 주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우리를 격려해 준다.

남편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연단에서 말씀할 때, 우리가 좀더 훌륭한 자녀, 부모, 남편, 아내,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사랑스러운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힝클리 대관장과 힝클리 자매는 자신들의 5명의 자녀, 25명의 손자녀, 그리고 35명의 증손자녀 외에도, 그들이 가는 곳에서마다 "가족"을 발견하는 것 같다. 90년이 넘는 삶과 66년의 결혼 생활 동안에 자신들이 모범으로 보인 생활 방식을 가르쳐 온 힝클리 부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할들에 관해 조언을 줄 만한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에 결혼 생활 및 가족을 강화하는 방법에 관해 교회 잡지 편집자와 대담을 가졌다.

"남편은 제게 재량권을 주어서 부담 없이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교회 잡지: 대관장님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오랫동안 매우 행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힝클리 대관장: 훌륭한 결혼 생활의 초석은 상호 존중, 즉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의 편안함과 안녕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남편이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 곳곳에서 좀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 잡지: 힝클리 자매님은 "남편은 항상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해 줍니다. 남편은 제가 그의 방식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고집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제게 재량권을 주어서 부담 없이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1] 남편께서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힝클리 자매: 남편은 제게 해야 할 일을 결코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느끼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라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다스리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잡지: 대관장님은 "일부 남편들은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표준에 맞추기 위해 아내들을 억누르는 것이 남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2]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관장님은 힝클리 자매님과 그런 일을 어떻게 피해 오셨습니까?

힝클리 대관당: 저는 아내의 개성, 성격, 소망, 배경, 포부를 알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담 없이 일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 일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길을 막지 않을 때, 그녀가 하는 일에 놀라게 됩니다.

교회 잡지: 자매님이 대관장님을 놀라게 했던 일을 몇 가지 들려주시겠습니까?

힝클리 대관장: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

힝클리 자매(웃으면서): 말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마조리 페이 힝클리(위, 1937년 결혼 직후)와 고든 비 힝클리(위, 1932년 대학교 졸업 사진)는 사랑에 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곁에서 걸으며 66년을 함께 살았다.

사진: 돈 부사스

위: 고든 비 힝클리, 1935년 교회 직원으로 일할 당시

힝클리 대관장은 행복한 생활에 대한 공을 아내에게 돌렸다.(위, 1943년경 두 자녀와 함께)

힝클리 대관장: … 아내는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 저는 많은 시간을 교회 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초기 시절 제가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었을 때, 길게는 한 번에 한두 달 정도를 나가 있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때나 전화를 주고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보살폈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관리했으며 자녀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뒷마당에 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기간의 출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원에 온통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뒷마당의 땅을 파내고 잔디 씨를 심어서 아름다운 잔디밭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집 남쪽으로 다른 정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정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뒷마당 전부는 아름다운 잔디밭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아내가 일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말해 줍니다. 아내는 독립적이고 또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웃는 쪽이 더 좋습니다."

교회 잡지: 힝클리 자매님은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유일한 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웃는 것입니다. 웃거나 울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웃는 쪽이 더 좋습니다. 울면 머리가 아픕니다."[3]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힝클리 자매: 인생에서 웃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교회 잡지: 자매님에게 웃음이 가장 좋은 묘약이 되었던 때를 들려주시겠습니까?

힝클리 자매: 대부분의 때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루는 제가 찜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신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오븐 속에서 그 요리를 꺼냈을 때 우리 아들 딕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잡동사니를 찌셨어요?"

교회 잡지: 그때 아드님은 몇 살이었습니까?

힝클리 자매: 열네 살이었습니다. 알 만큼 알 나이였지요!

모두가 서로 사이 좋게 지냅니다

교회 잡지: 두 분께서는 가족들이 친밀해지도록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힝클리 대관장: 음,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말입니다.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는 여름철에 밖으로 나가서 구경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결혼한 뒤에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한번은 자신의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과 함께 홍콩의 거리를 걸어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시아로 갔습니다. 그 뒤에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거리를 걸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아 자녀들과 함께

힝클리 대관장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을 당시의 힝클리 가족.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와의 만남을 즐기고 있다는 점을 아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시내에 살고 있고 여건이 되는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증손자녀들과 함께 확대 가족 가정의 밤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것들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밤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멀리 떠나 있었을 때는 아내가 가정의 밤과 기타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갔습니다.

교회 잡지: 확대 가족이 갖는 가정의 밤을 설명해 주시죠.

힝클리 대관장: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즐깁니다. 오늘날의 여건에서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교회 잡지: 대관장님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집에서 가졌던 가정의 밤에 관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 그렇습니다.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발표하셨습니다. 제 부친께서는 "우리도 가정의 밤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시도를 했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부친의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항상 가정의 밤을 가져왔으며, 자녀들은 지금 그들의 가정에서 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 잡지: 가정의 밤을 가지라는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성약에 따라 살고 있지만 탈선해 나간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힝클리 대관장과 자매는 함께 전세계를 여행했다.(오른쪽) 여기에는 1991년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의 재헌납을 위한 캐나다 여행도 포함된다.(위쪽)

힝클리 대관장: 글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신앙을 지니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힝클리 자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해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힝클리 대관장: 포기할 때까지는 결코 어느 누구도 잃어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견디어 내십시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가족은 놀랍도록 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공을 이 체구 작은 아내에게 돌리겠습니다.

힝클리 자매: 고마워요.

교회 잡지: 가정의 밤을 갖지 않는 가정에서 살고 있으나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자녀들에게 어떤 권고를 주시겠습니까?

힝클리 대관장: 자녀들은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부모님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간구하고 또 부모에게

사진: 게리 아반트, CHURCH NEWS

위: 1983년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헌납식에서

위: 1996년 6월 예루살렘의 동산 무덤에서 자녀들과 함께한 힝클리 대관장과 자매.

위: 딸, 손녀, 두 명의 증손녀와 함께한 힝클리 자매. 아래: 힝클리 대관장의 80세 생신 축하 모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좀더 훌륭한 생활 표준으로 나아갔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어떤 자녀들은 교회 친구들의 가정에서 좋은 경험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또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르겠다는 소망을 지닌 가정의 축복과 유익을 가질 수 없을 때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교회 잡지: 대관장님은 부친께서 자녀들을 훈육할 때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4]

힝클리 대관장: 맞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을 훈육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행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좀더 좋아질 수 있으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좀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는 결코 저희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은 조용히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 그 분은 우리를 때리거나 체벌을 가하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우리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에 대한 체벌의 효과를 결코 믿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잡지: 힝클리 자매님, 자매님은 "때리고서는 자녀들에게 때리지 말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5]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힝클리 자매: 제 딸 제인이 어린 소녀였을 때, 하루는 그 아이가 와서는 외출 금지를 당한 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외출 금지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자신들이 언제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으며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고칠 것입니다. 딸 애 가운데 하나가 어느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 애는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그 애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 아이는 그저 잔디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일이 재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기대한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교회 잡지: 힝클리 자매님은 남편께서 교회 대관장이 되셨을 때 놀라시면서 "저처럼 훌륭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궁지에 빠졌을까요?"[6]라는 말씀으로 청중들을 즐겁게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훌륭한 신사분과 함께한 66년의 결혼 생활을 그런 말씀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힝클리 자매: 글쎄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훌륭한 날들이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후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잡지: 오늘날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두 분께서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힝클리 대관장: 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대공황기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에게는 값나가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도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힝클리 자매: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힝클리 대관장: 우리는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즉 자녀들의 병이나 그와 비슷한 일 등 우리도 부모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평생을 훌륭한 여성과 함께 살며, 자녀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행복하고 능력 있는 개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때에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성공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몇 대의 자동차와 얼마나 큰 집,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질이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 잡지: 의견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힝클리 대관장: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존중은 세상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방법에 따르도록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녀의 방법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하고 아내의 재능과 관심사에 대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좀더 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일부 남성들이 아내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아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지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남성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아내를 지배하려 하는 곳에서는 자녀들이나 부모들의 삶에 행복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협력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혼 및 가족 생활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인생 역정의 동반자입니다.

힝클리 자매: 제가 결혼을 참 잘했죠, 그렇죠?

힝클리 대관장(웃으면서): 우리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늘 서로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

주

1.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1996), 141쪽에서 인용.
2. *Cornerstones of a Happy Home*(pamphlet, 1984), 5쪽.
3. Virginia H. Pearce, ed., *Glimpses into the Life and Heart of Marjorie Pay Hinckley*(1999), 107쪽에서 인용.
4. "우리 가정의 환경", *성도의 벗*, 1985년 10월호, 4쪽 참조.
5. *Glimpses*, 53쪽에서 인용.
6. *Glimpses*, 108쪽 참조.

마빈 케이 가드너와 돈 엘 설이 이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 케리 아번트, CHURCH NEWS

맨 위: 1997년 10월 피지를 방문했을 때. 위: 엘로스톤 국립 공원에서

사진: 케리 아번트, CHURCH NEWS

위: 1996년 5월 중국의 선전(심천)에 도착했을 때. 왼쪽: 1995년 힝클리 대관장의 85회 생신 축하 모임에서 가족과 함께

라이언을 위한 노래

루아나 리시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안락함을 만끽하던 어느 토요일, 그런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무선 호출기에서 울리는 소리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불이 났음을 알려 주었다. 안전모가 헝클어진 머리칼을 가려주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급하게 방화복을 챙겨 입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시 소방서에 들어온 이래로 나는 외모에는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며, 나중에는 구급 의료 기사(EMT)가 되었다.

시멘트 공장의 화재는 곧 진화되었다. 그러나 다시 무선 호출기가 울렸는데, 이번에는 네 살 된 소년과 관련된 고속 도로 사고로 구급 의료 기사를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이 일이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떤 구급 의료 기사도 중상을 당한 아이를 보살필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정말로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중앙 분리대에 전복되어 있는 흰색 승합차가 보였다. 나는 그 아이가 아직도 차 안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환자를 찾기 위해 재빨리 둘러보았다. 그러나 고속 도로 반대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곳에는 몇몇 사람들이 어린 아이로 보이는 조그만 인체 주위에 둘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남자는 의사였다. 그는 소년이 가장 심하게 부상당한 부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한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 여인에게 소년의 이름을 아는지 물어 보았다. "이 아이의 이름은

어린 환자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라이언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되기를 바랐다. 라이언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엄마에게 다 잘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내 손은 익숙한 절차에 따라 움직였으나, 나는 너무도 미흡하고 혼자라고 느껴졌다.

라이언이에요." "난 이 아이의 엄마예요."라고 여인은 말했다. 놀랍게도 아이의 엄마인 그녀와 큰 애 둘은 다치지 않았다.

구급 의료 기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때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고통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훈련 받은 것을 되새길 수 있었지만, 결국 감정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어린 환자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라이언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되기를 바랐다. 라이언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엄마에게 다 잘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내 손은 익숙한 절차에 따라 움직였으나, 나는 너무도 미흡하고 혼자라고 느껴졌다. 내 동료는 아직도 차 안에 갇혀 있는 라이언의 아빠를 돌보아야 했으므로 나를 도울 여지가 없었다.

구급차가 곧 도착했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나는 라이언의 머리를 고정시키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 위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고 그는 계속 울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을 쳤다. 그의 부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강제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나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라이언을 편안하게 진정시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길 간구했다. 나는 곧 "그를 위해 노래하라"는 응답을 받았다. 나는 주저했다.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일었다. 그래도 난 전문 직업인인데 심하게 부상당한 환자를 실은 구급차 안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이언은 심하게 울어댔고 나는 다시 확실한 느낌을 받았다. "그를 위해 노래하라." 난 그의 머리를 잡고 그의 귀 가까이 몸을 기울여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다. "나는 빛나는 별과 같이 웃으며 온 세상 보네."("나는 별과 같이", *어린이 찬송가*, 84쪽) 내가 노래를 부르자 라이언은 울음을 그쳤다. 나는 "난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초등회 노래를 많이 불렀다. 심히 걱정에 휩싸인 엄마가 나와 같이 노래를 부르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라이언이 말일성도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 번에 걸쳐 구급 의료진은 아이가 너무 조용하다고 염려했지만 라이언은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곤 했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그리고 응급실로 들어가 그 곳 의료진이 라이언의 치료를 맡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나는 라이언과 그의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 날 늦게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라이언은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비록 라이언과 그의 아버지는 회복하기 위해 장기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지만, 나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 감사했다. 라이언과 나는 곧 좋은 친구가 되었으며, 아직도 매년마다 라이언의 사진이 든 성탄절 카드를 받고 있다.

나는 그 어린 환자가 사랑했던 노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나게 해 주었던 그 노래를 듣고 아이가 즉시 평온해졌던, 그 기도의 응답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응급 치료의 효과도 참으로 놀라웠지만, 아름답고 단순한 몇몇 초등회 노래는 온화하고 심오한 기적으로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

루아나 리시는 아이다호 맥카몬 스테이크 래피드 크릭 와드의 회원이다.

단지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욜란다 자야스

남편과 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우리 다섯 식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우리의 세 자녀 베버리, 제니스, 랄프와 함께 참석했다. 남편 라울은 모든 교회는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교회가 매우 상업화되어 있으며 많은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내는 헌금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종교 서적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관심 있는 이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1986년 2월 남편은 우리 집 옆으로 지나가는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그들을 불러 세웠다. 그의 의도는 그들이 속한 교회가 집회소를 세우기 위한 땅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 보기 위해서였다. 남편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는 선교사와의 만남을 영업 기회로 보았다.

선교사들은 이 문제에 관해 남편에게 어떠한 자료도 줄 수 없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복된 복음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약속을 정할 수 있는지 남편에게 물어 보았다. 남편은 전에 접촉했던 다른 교회들과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하고는 다음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들이 속한 교회도 사업을 위해 주님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줄 작정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다소 미심쩍은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와 교회사에 대해 우리에게 얘기를 해 나가자 우리의 마음속에 매우 특별한 어떤 느낌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떠나면서 우리에게 몰몬경을 주었다. 남편은 책 값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물어 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책은 무료였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교회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선교사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 보기 시작했다.

그 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교회에 참석했으며, 1987년 7월 15일에 우리

선교사들은 몰몬경을 우리에게 주었다. 남편은 책 값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물어 보았다. 놀랍게도, 그 책은 무료였다.

가족 모두는 개종하게 되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고 후에 성전에서 영원히 인봉되었다. 우리의 아들 랄프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나중에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딸은 성전에서 귀환 선교사들과 결혼했고, 우리는 지금 아홉 명의 아름답고 건강한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남편과 나는 교회에서 많은 부름에 봉사해 왔으며, 영적으로 나날이 성장하여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섬의 남부에 위치한 우리 지부에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다. 남편은 살리나스 지부의 지부장을 두 번 역임했다. 직분을 다하여 일을 하는 과정은 고되었으나 지부로서의 우리의 모범으로 인해 다른 도시에도 많은 복음의 씨앗이 퍼지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영원히 감사드릴 것이다. 단순히 부동산을 팔기 위한 대화로 시작해 교회가 곧 사업임을 증명하려던 노력은, 우리 가족을 해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래, 즉 우리 가족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

욜란다 자야스는 푸에르토리코 구아야마 지방부 살리나스 지부의 회원이다.

교회에 가 보라

야담수렌 문크투야

나는 몽골 지방에서 성장하여 불교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에게 얘기를 하고는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초대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왔으나 여전히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가 다녀간 지 몇 주 후에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한 음성이 나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뭐라고요, 무슨 교회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 음성은 나에게 어떻게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지 알려 주었다. "내일 아침에 이 교회에 가 보라. 네가 교회에 들어갈 때 두 명의 선교사가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꿈에 도대체 누가 나에게 온 것일까? 누가 나에게 말을 한 것일까?"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지시에 따랐고 교회를 찾을 수 있었다. 교회 앞에 이르자 과연 두 명의 선교사가 나를 반겨 주었다. 그들은 나와 악수를 하고는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라고 권했다. 회원들은 친절했고, 모두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매우 행복했다.

성찬식 후 선교사들은 토론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말했다.

존슨 장로와 샘슨 장로가 나에게 첫 번째 토론을 가르쳤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강한 간증을 갖고 있었다. 나는 많은 질문을 했고 장로들은 그 때마다 나에게 잘 답변해 주었다. 그들은 나와 함께 경전을 읽었으며 함께 나누었던 간증에 대해 기도를 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아갔다.

꿈에서 한 음성이 나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무슨 교회라고요?" 그 음성은 나에게 어떻게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지 알려 주었다. "네가 교회에 들어갈 때, 두 명의 선교사가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배운 것이 참된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이 교회가 참되다면, 저에게 영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난 후 나의 마음은 참으로 평온해졌다. 마치 하늘을 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응답이 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분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 혼란스러워 하지 말아라. 이 교회가 지상의 유일한 참된 교회이다." 나는 성신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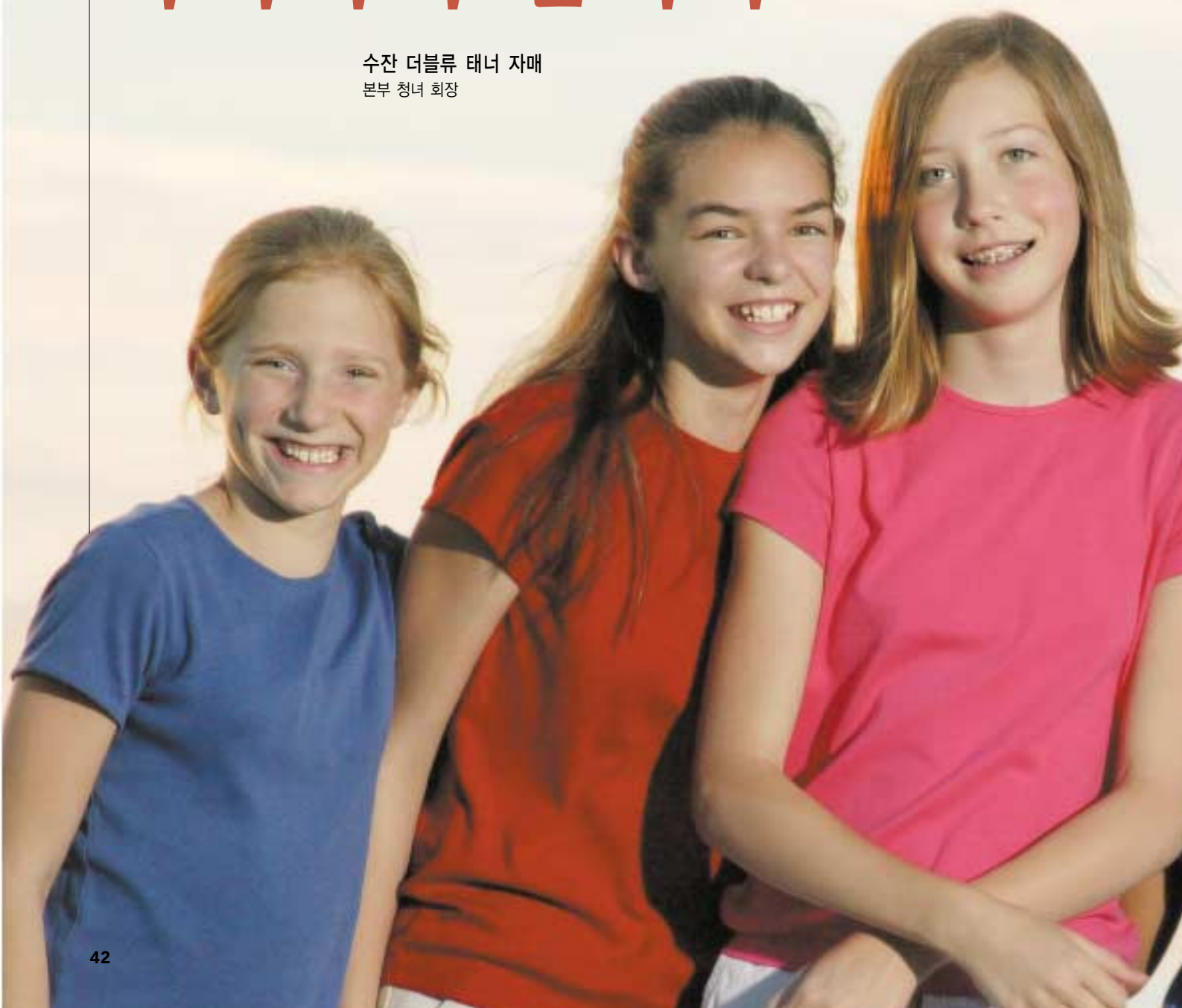
이틀 후 선교사들이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고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뛸 듯이 기뻤다. 다음 3주 동안 장로들은 나에게 나머지 토론들을 가르쳤고 나는 침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구세주이시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안다. 나는 몰몬경을 사랑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안다. 나는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나는 선교 사업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인도됨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

야담수렌 문크투야는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북 지방부 올드 다칸 지부의 회원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본부 청녀 회장



수줍은 얼굴을 하면서도 열의로 가득한 12세 소녀들이 모여 있는 교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청녀 주제의 첫째 줄에 있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청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머리를 숙이고 초조하게 발을 움직이면서 자신이 호명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분명했고 어쩌면 그들이 비공개로 답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과를 하는 동안 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찾음

공과를 마칠 때, 저는 청녀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면서 익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적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답을 적으려고 애쓰면서 "이건 너무 어려워" 혹은 "내가 정말 그 사실을 아는지 확신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과를 진행하는 동안 줄곧 눈물을 흘리던 조슬린이 특히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들이 적어 낸 종이를 혼자서 조용히 읽으면서, 저는 구겨진 종이가 그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적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제 어머니를 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소녀의 어머니는 저의 친한 친구이기도 하며 저도 그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녀는 막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직후 퇴원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장 동맥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재빠르게 그녀의 상태를 회복시켰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청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델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시

저는 조슬린의 대답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의 어머니를 구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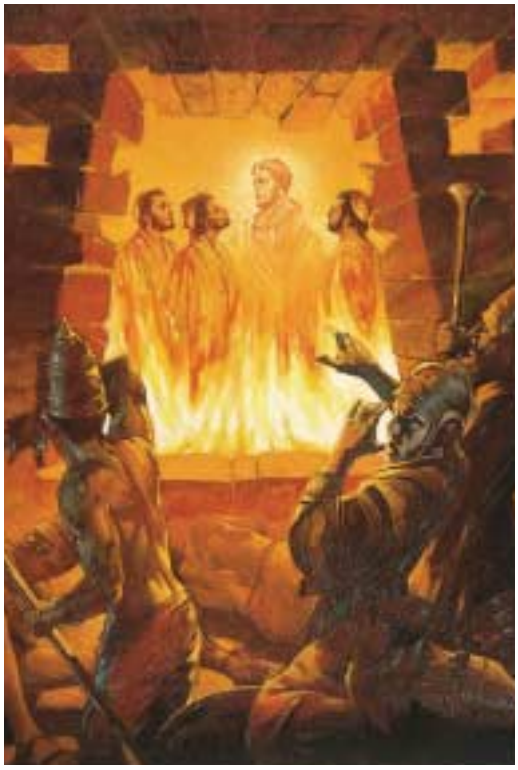
그녀가 회복된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슬린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조슬린의 대답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의 어머니를 구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했을까? 인생의 불가피한 슬픔과 비극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러자 제 조카인 애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슬린의 경우와는 상당히 반대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 년 전쯤 애슐리는 부모와 함께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 근처 해변가의 커다란 바위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중에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 물의 색깔이 나타나도록 아름다운 경치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대한 파도가 해변가를 덮치더니 그녀의 아버지를 바다로 휩쓸어 가고 어머니를 바위로 끌어갔습니다. 애슐리는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살인적인 파도는 그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목격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곧 휴대폰을 갖고 있던 사람이 긴급 전화를 걸어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파도에 휩쓸려가 있던 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아니고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바위와 거친 바다로 인해 부러진 등과 팔 그리고 찢기고 터진 상처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애슐리의 아버지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슐리의 어머니는 바닷가에 누워 구조를 기다리면서 남편이 곁에 있다고 느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결국 찾아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화형으로부터 구출된 반면, 아빈아다이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신뢰했지만 그의 생명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애슐리의 아버지를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슐리는 여전히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빠를 다시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한 보살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매주 교회의 모든 청녀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일어서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를 강화하고 지탱시켜 줄 만큼 깊이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 잘 알고 느낄 수 있을까요? 조슬린과 애슐리의 예가 우리의 삶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경전에서 그분의 사랑을 찾음

이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는 동안, 서로 비교가 되는 경전상의 예들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풀무에서 구출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화형으로 순교당한 아빈아다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주님의 충실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풀무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분의 뜻일 경우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다니엘 3:17)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하실 수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호를 받든, 받지 못하든 그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앙에 놀란 느브갓네살 왕은 그들이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한] 종들"(다니엘 3:28)에게 보이신 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예언자 아빈아다이 역시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노아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와 나의 백성들에 관하여 불길하게 이야기한 것을 취소하지 않을진대 이로써 너를 사형에 처하리로다."(모사이야서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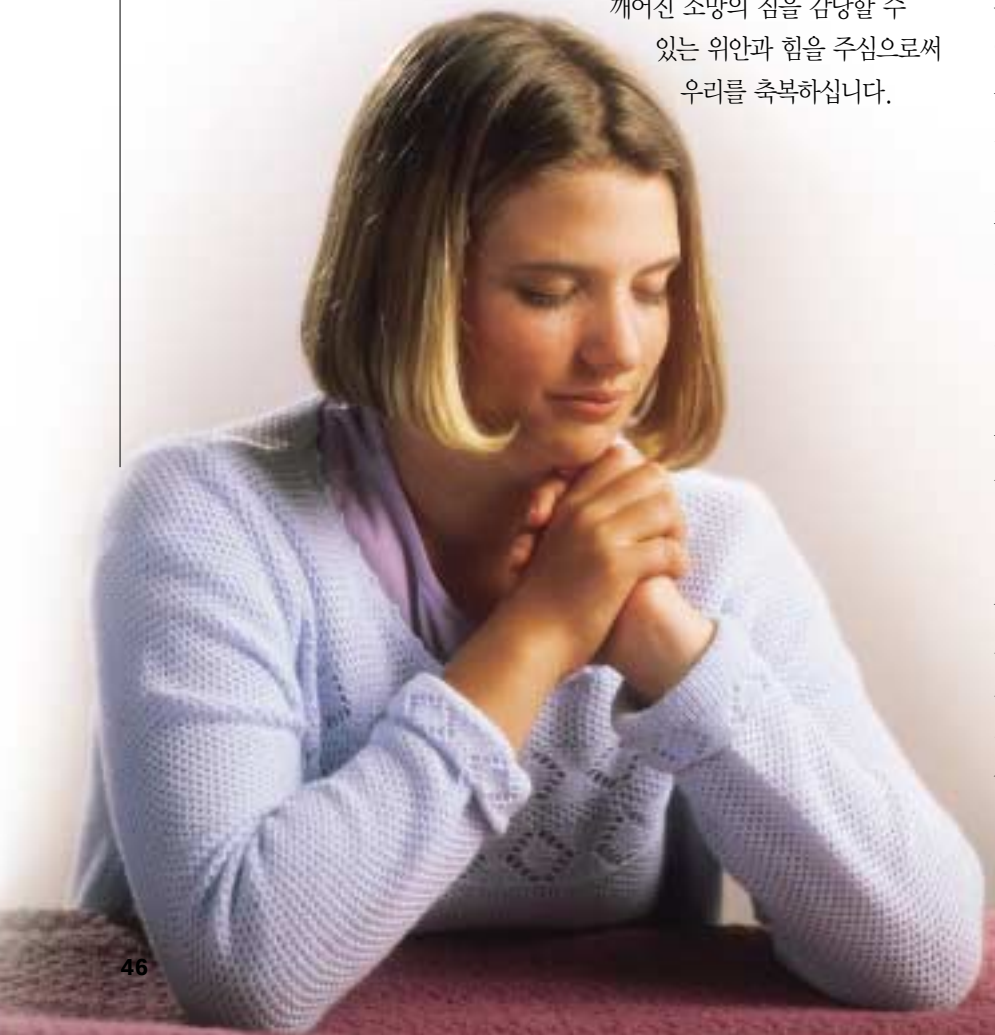
아빈아다이는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분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깨어진 소망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위안과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가 불에 타 죽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 불에 타 죽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지 아니하여 죽음을 당하였고, 저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죽음으로 봉하였더라."(모사이야서 17:20) 그는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화형으로부터 구출되었으며, 아빈아다이는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그들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거나 나쁜 일보다 위대합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깨어진 소망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위안과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범사에 그분의 사랑을 찾음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축복을 위해 기도를 드렸으며 그분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비와 사랑 안에서"("Bless Our Fast, We Pray", *영문 찬송가*, 138쪽), 출생과 침례에서, 건강과 병고침에서, 아침과 산에서, 우정과 가족의 사랑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때와 성전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반면, 저는 역경 중에도 신앙을 지탱해 왔습니다. 어떤 짐들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하고 소망할 정도로 저를 짓누릅니다.(누가복음 22:24 참조) 사실, 제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힘든 경험을 할 때입니다. 저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감을 느끼며, 그분께서 저를 업고 가시고, 위로하시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친 그 의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5, 38~39)

조슬린과 애슐리의 경우, 한 소녀의 부모는 살아나고 다른 소녀의 부모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쁘고 슬픈 모든 경험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있는 청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조슬린이나 애슐리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라는 확신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알고 계십니까?

네덜란드 소식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하이드 장로(위)는 184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로테르담에서 일주일 이상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 후 20년 동안 네덜란드에는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파견되지 못했다.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개종자가 침례를 받은 것은 1861년 10월 1일에 브로에크 비즈 아케르우데라는 마을 근처에서였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세 개의 스테이크와 7,800명의 회원이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은 2002년 9월 8일에 헌납되었다.

몰몬경 도전

스위스 크루슬링겐에 있는 종교 교육원에서 학생들이 몰몬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위), 그들은 생활에서 커다란 평안의 영을 느꼈으며, 그 영을 지부 회원들과 나누기로 했다. 학생들은 성찬식에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했다. 이사야 12장 2절을 주제로 정하여(오른쪽), 그들은 지부 회원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을 한 달 동안 읽도록 권고했다.

한 달 간의 과제를 끝내고 난 후에도, 지부 회원들의 읽는 습관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그들의 습관을 통해 종교 교육원 학생들이 느꼈던 평안의 영이 그들에게도 왔다. 아를레타 라이센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지부에서 느낄

수 있는 영은 현재 매우 강합니다. 모든 회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더욱 기꺼이 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갖고 계신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10월에 있었던 일

다음은 교회사에서 10월에 일어났던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다.

1833년 10월 5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캐나다로 여행했으며 그 곳에서 16명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었다.

1867년 10월 6일: 템플 스퀘어에 있는 새로 완공된 태버내클에서 최초의 연차 대회가 시작되었다. 건물은 1875년 10월 9일에 헌납되었다.

2000년 10월 8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태버내클에서 북쪽으로 한 구획 떨어진 곳에 위치한 21,000석 규모의 새로운 컨퍼런스 센터를 헌납했다.

사진 촬영: C. R. 새비지, 태버내클: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모드, 컨퍼런스 센터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 "주님의 타이밍", 10쪽: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때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경전이나 가족의 생활에서 주님의 타이밍을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예를 들어 보도록 질문한다.

•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42쪽: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가 제기한 다음 질문들에 대해 토론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바라는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태너 자매의 조카인 애슐리의 이야기와 아빈아다이 혹은 그와 비슷한 다른 이야기를 언급한다.

• "꼬마 기관차", 친2쪽: 가족 중 어린 자녀들에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말씀한 "꼬마 기관차"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들 중 하나에게 그 이야기를 요약하게 한다. 세 가지 기차가 갖고 있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작고 파란 꼬마 기관차와 같아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게 한다.

모델 사진 촬영: 켈리 라슨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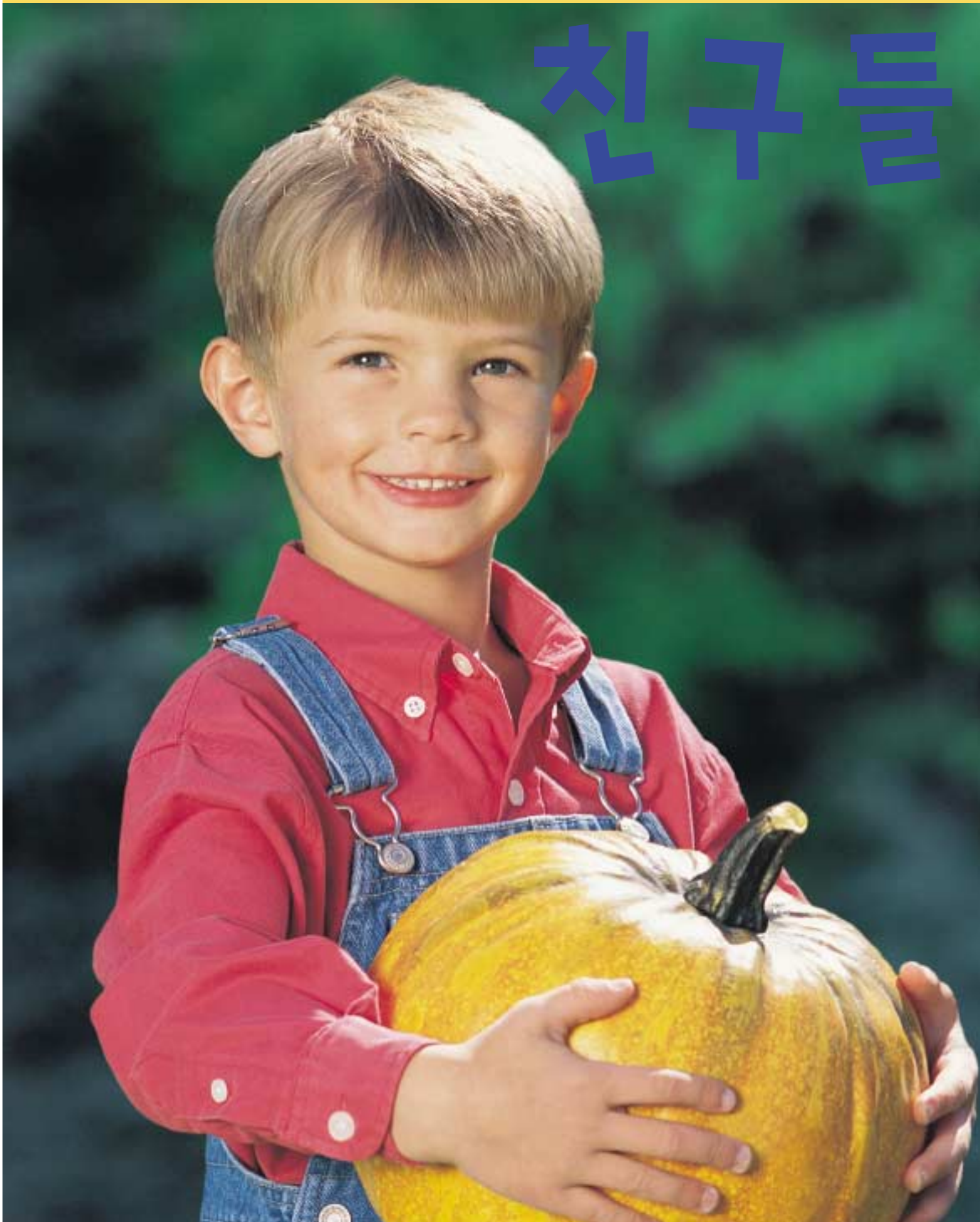
가르침 ····· 48
가정의 밤 ····· 48
가족 관계 ····· 18, 32, 38
간증 ····· 친14
개종 ····· 2, 18, 30, 38, 친8
결혼 ····· 10, 32
교만 ····· 25
교회사 ····· 47
그리스도의 빛 ····· 친6
꾸준함 ····· 친2
모범 ····· 친 6
몰몬경 ····· 18, 30, 47
병 고침 ····· 친8
봉사 ····· 친2
비유 ····· 26
사랑 ····· 42
선교 사업 ····· 2, 6, 18, 38
성신 ····· 38, 친11
성전 및 성전 사업 ····· 친4
세계적인 교회 ····· 친12
순종 ····· 6, 친11
신권 ····· 22
신앙 ····· 10, 26
신약전서 ····· 26, 친8, 친11
역경 ····· 6, 42
예수 그리스도 ····· 26, 친6
예언자 ····· 친14
은혜 ····· 26
음악 ····· 38, 친12
인내 ····· 10
자비 ····· 25
준비 ····· 22, 25
지도력 ····· 47, 48
지속적인 활동 ····· 2
타이밍 ····· 10

자신이 가장 잘 기억하는 공과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생애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특별히 의미 있거나 즐거움을 주었거나 축복을 주었던 공과나 복음 토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기억하는 공과에 관한 기사를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Teaching,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cur-liahona-imag@ldschurch.org로 전자 우편을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와드 및 스테이크 명칭(또는 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별책 부록 · 2003년 10월호

친구들



완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꼬마 기관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주님께 기꺼이 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사용한다.

저는 열 살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꼬마 기관차"라는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차에 온통 장난감 동물, 장난감 어릿광대, 잭나이프, 퍼즐, 책,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산 위로 기차를 끌어올리던 기관차가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커다란 여객용 기관차가 지나가다가 꼬마 기차를 산너머로 끌어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그 기관차는 꼬마 기차를 끌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다른 기관차가 지나가지만 그 역시 화물용 기관차라 꼬마 열차를 도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늙은 기관차도 지나가지만 "난 피곤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도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파란 꼬마 기관차가 철로를 내려오다가 산 너머 어린 아이들이 기다리는 데까지 기차를 끌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 꼬마 기관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몸집도 크지 않고 보선소에서 차량 교체용으로만 쓰여. 한 번도 산을 넘어 본 적이 없는 걸." 하지만 산 너머에 있는 어린이들이 기차 속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면 실망할 거라는 생각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는 뒤에다 꼬마 기차를 연결합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파란 꼬마 기관차가 나아갑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자세로 꼬마 기관차는 산꼭대기까지 오른 뒤 산 너머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간혹 우리는 모두 자신을 힘껏 활용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작은 기관차처럼 우리는 올바른 궤도 위에서 재능들을 키워야 합니다. 올바른 궤도 위에 머물러 있기 위해 우리는 신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부여된 임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덩치 큰 여객용 기관차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조금 더"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 그 화물용 기관차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꼬마 기관차"처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몸집이 크지도 않고 차량 교체용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산을 한 번도 넘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기관차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 꼬마 기관차는 주저 앉은 기차에 몸을 걸고 산꼭대기를 칙칙폭폭 오른 뒤 그 산을 내려가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산들을 올라가야 합니다. ●

2002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주

1. "The Little Engine That Could",(꼬마 기관차)는 메이블 시 브레그의 The Pony Engine(1930)에서 와티 파이퍼가 다시 이야기함.

사진 촬영: 돈 부사스; 삽화: 마크 톰슨

성전 카드

2003년에는 *친구*들 각 호마다 성전 카드가 실립니다. 잡지에서 성전 카드를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오려 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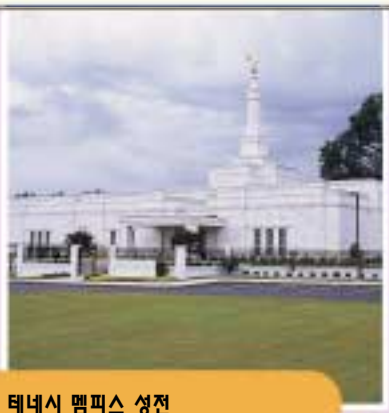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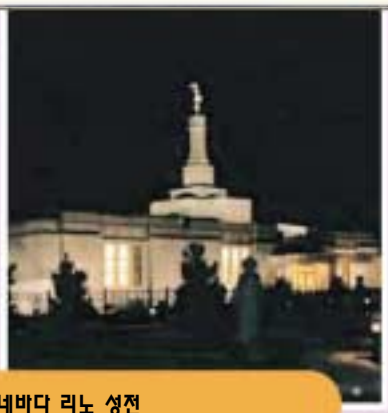


사진 촬영: 릭 피셔

테네시 멤피스 성전

2000년 4월 23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헌납함



네바다 리노 성전

2000년 4월 23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헌납함

볼리비아 코차밤바 성전

2000년 4월 30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멕시코 탐피코 성전

2000년 5월 20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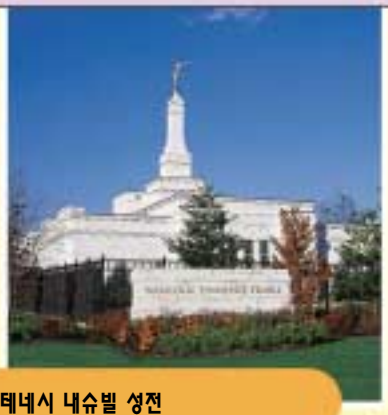


사진 촬영: 로즈 메이슨

테네시 내슈빌 성전

2000년 5월 21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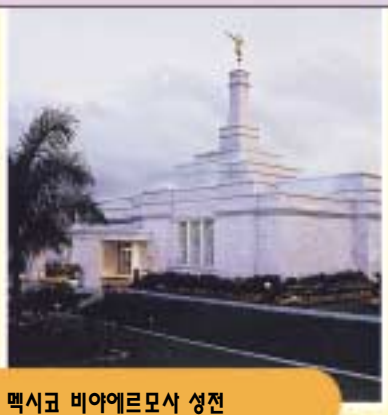


사진 촬영: 헤르밀라 카릴로

멕시코 비야에르모사 성전

2000년 5월 21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이반 두브

퀘벡 몬트리올 성전

2000년 6월 4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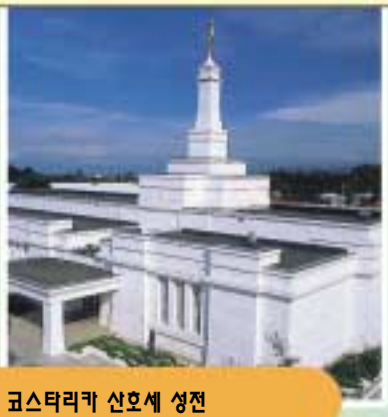


사진 촬영: 에이 포트그라피아르테

코스타리카 산호세 성전

2000년 6월 4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헌납함

일본 후쿠오카 성전

2000년 6월 11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성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카드를 모으십시오.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성전

2000년 6월 15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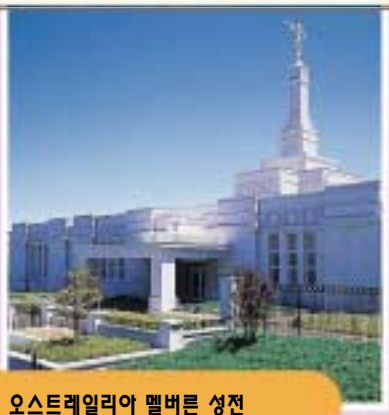


사진 촬영: 마이클 밀너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성전

2000년 6월 16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피지 수바 성전

2000년 6월 18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멕시코 메리다 성전

2000년 6월 8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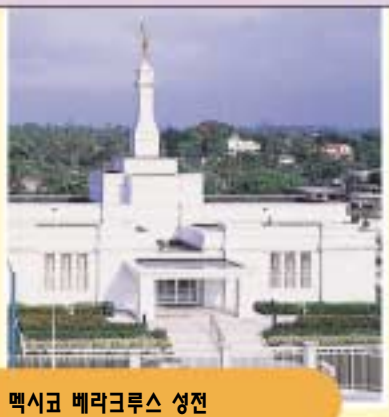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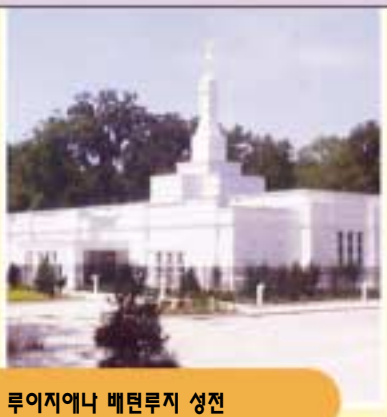


사진 촬영: 호세 마누엘 곤잘레스

멕시코 베라크루스 성전

2000년 7월 9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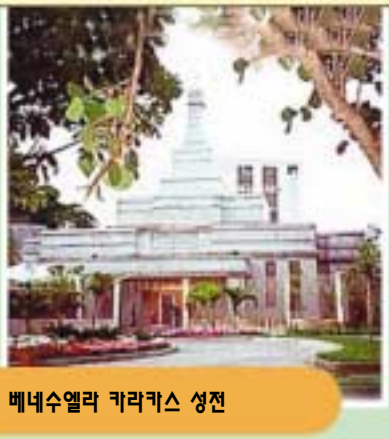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성전

2000년 6월 16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시티 성전

2000년 7월 30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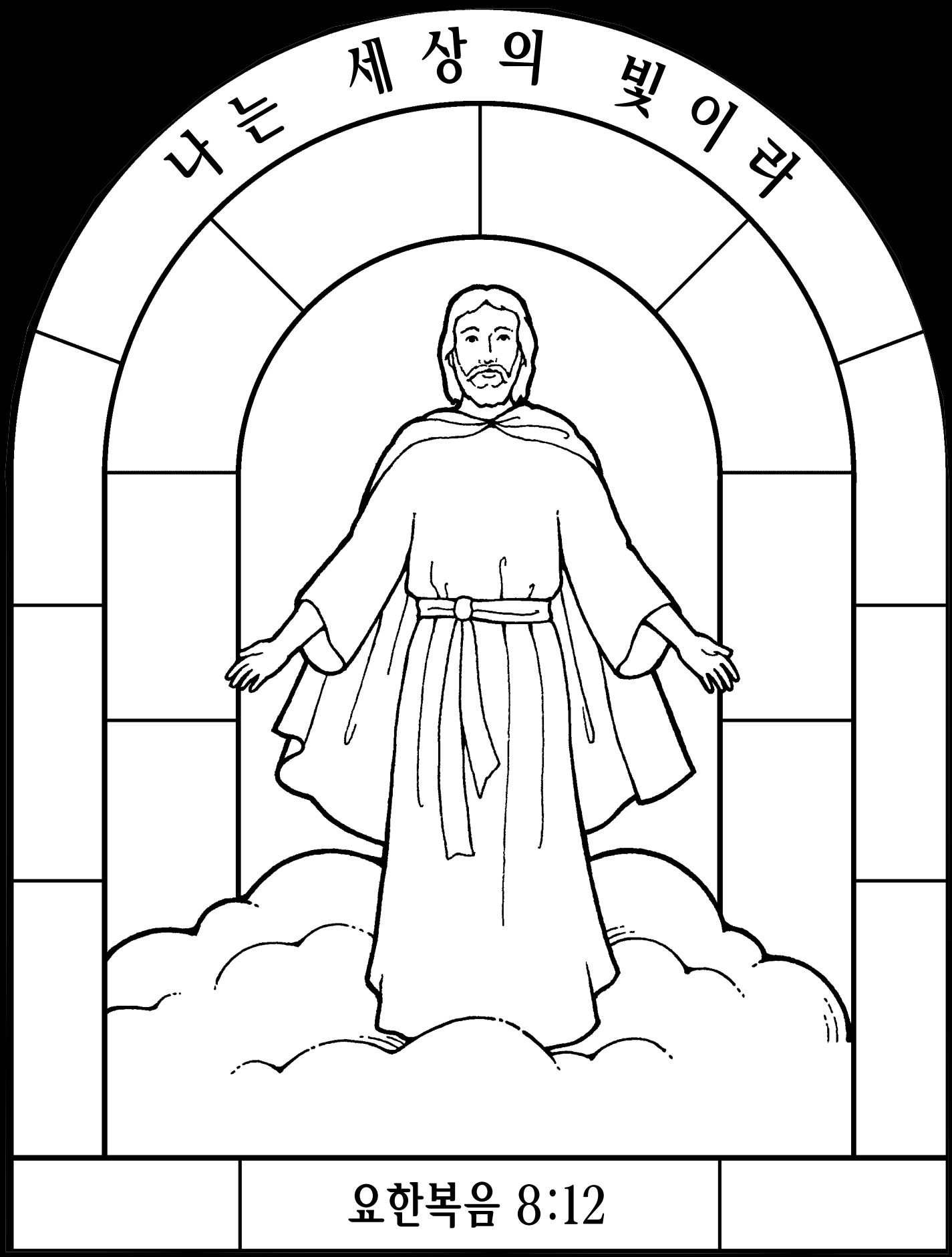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

2000년 8월 20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텍사스 휴스턴 성전

2000년 8월 26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12

그리스도의 빛

비키 에프 마쭈모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빛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촛불, 회중 전등, 전구, 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빛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태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모로나이서 7:16)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빛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밤에 농구 연습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곤 했습니다. 작은 서양배 모양의 발전기를 자전거 바퀴에 연결했습니다. 그런 후 페달을 밟으면, 타이어가 작은 회전자를 돌려, 그 곳에서 전기를 발생시킴으로써 한 줄기 빛을 밝게 비췄습니다. …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페달 밟는 일을 "힘써 노력할" 때, 빛이 더욱 밝아져 제 앞의 어둠이 물러가곤 했습니다."

헤일즈 장로는 "영적인 빛은 일상 생활에서 하는 영적인 페달 밟기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빛은 기도와 경전 읽기, 금식, 봉사—즉 복음대로 살고 계명에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8쪽)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지닐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 그림

흰 종이를 6쪽의 그림 위에 대고 본뜬 뒤 본뜬 그림에 색칠을 한다. 그림 위에 식물성 기름을 가볍게 바른 다음 수건으로 기름기를 닦아낸다. 칠십인 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그가 자라날 때, "예배당의 유리창에 성스러운 숲에 있는 요셉 스미스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려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면 저는 그 이야기가 전해 주는 것을 느꼈으며 첫번째 시현에 관해 초등회에서 배운 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4월호, 친3쪽) 구세주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 여러분의 그림을 유리창에 붙인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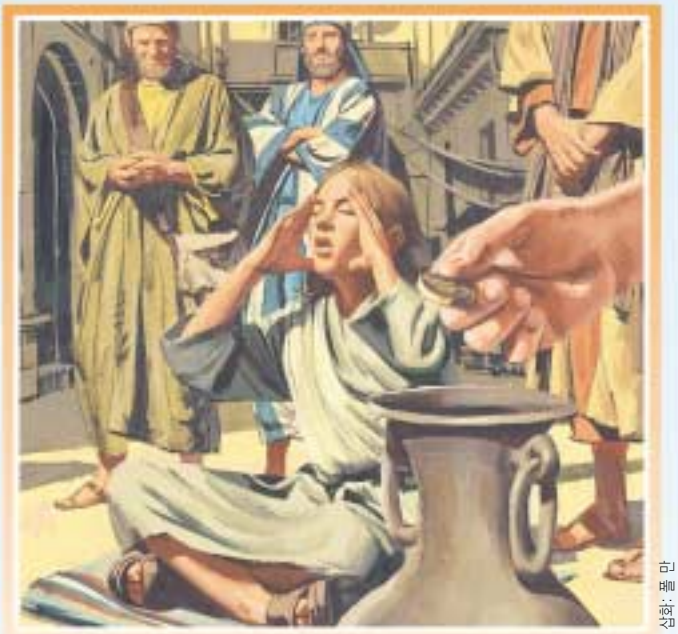
1. 어린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시고(마태복음 15:32~38), 불쌍히 여기시고(마태복음 14:14), 어머니를 공경하고(요한복음 19:26~27), 기도를 하시고(마태복음 6:9~13), 침례를 받으신 일(마태복음 3:13~17)과 같이 그분이 행하시거나 가르치신 일들을 읽고, 그림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친절하고, 금식 헌금을 바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구세주를 따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칠판에 선을 하나 긋고 그 선을 따라 "기쁘지 않음", "약간 기쁨", 그리고 "매우 기쁨"이라고 적는다. 어린이들에게 소리 내어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게 한다. 예수님의 그림을 "매우 기쁨" 위에 붙인다. "세상은 이 선에서 어디쯤 있을까요?"라고 질문한다. 어린이들에게 조용히 자신은 선에서 어디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고 싶은지 생각해 보게 한다. 구세주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2. 양초 모양으로 생긴 종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적는다. "여러분은 담배를 보게 되었다.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그것을 피워보기로 한다." "여러분은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것을 본다. 어머니를 도와 주기로 한다." 언덕과 커다란 바구니가 그려진 그림들을 벽에 붙인다. 어린이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16절을 읽게 하고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한다.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며 촛불을 선택하게 하고, 그 상황을 언덕 위에 둘 것인지 바구니 아래 둘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

삽화: 베스 엠 휴티커

신약전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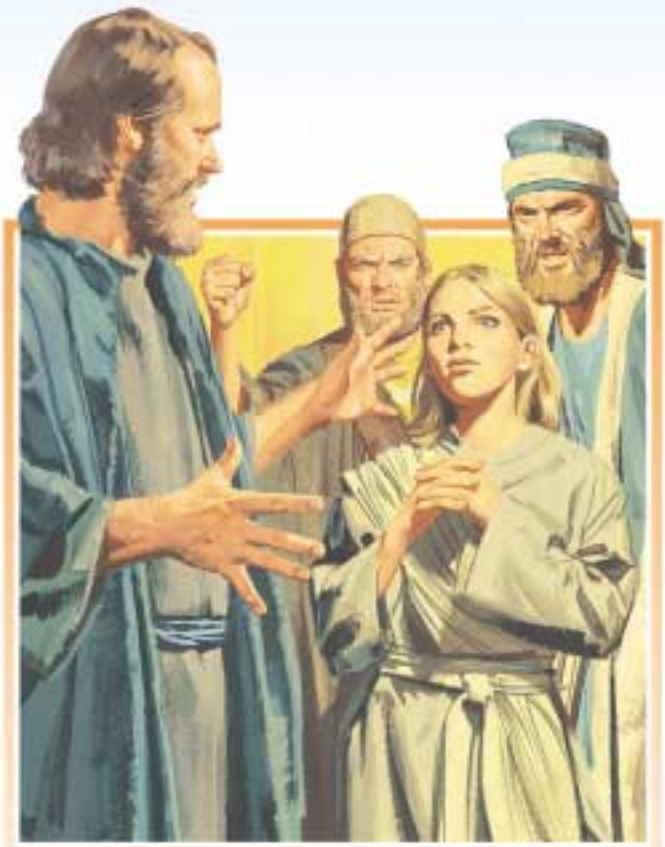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다



삽화: 폴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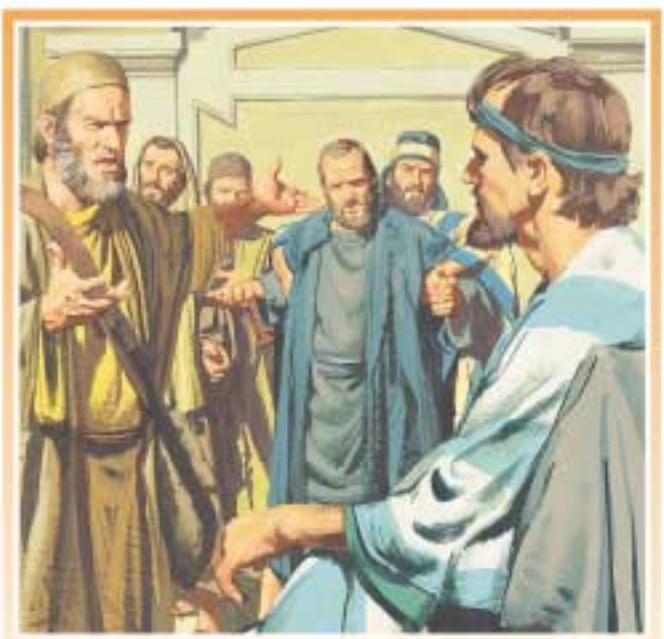
한 소녀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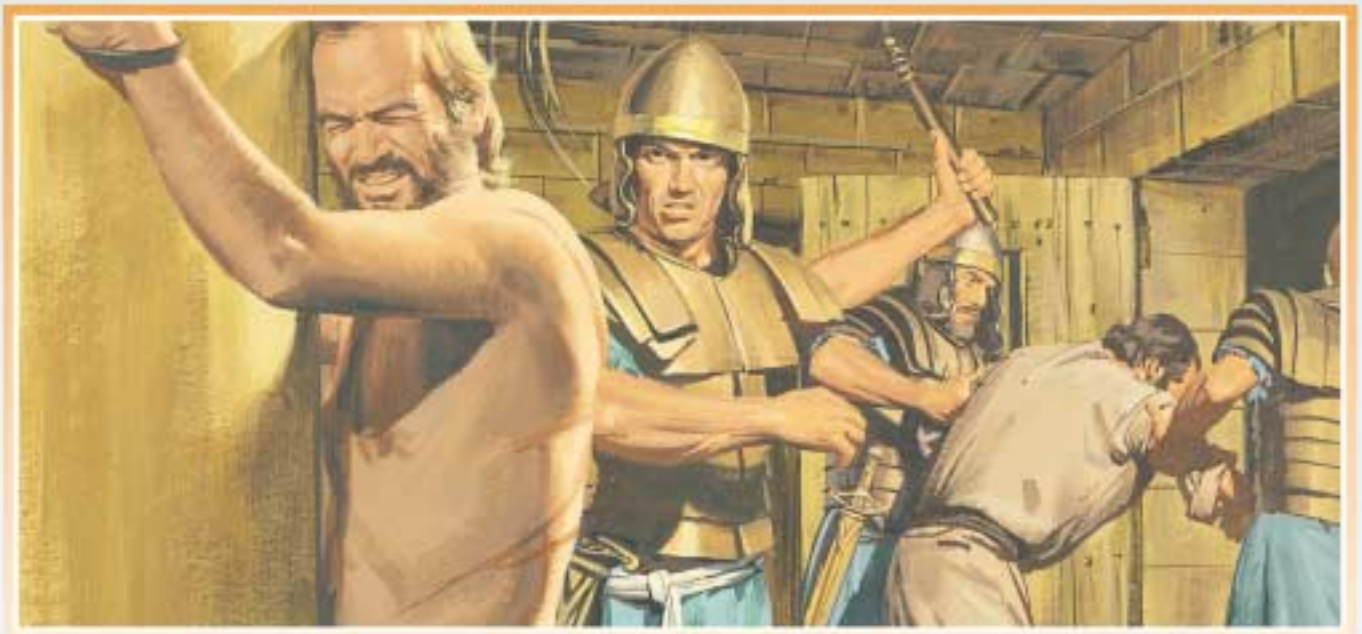
바울은 친구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귀신에게 그 소녀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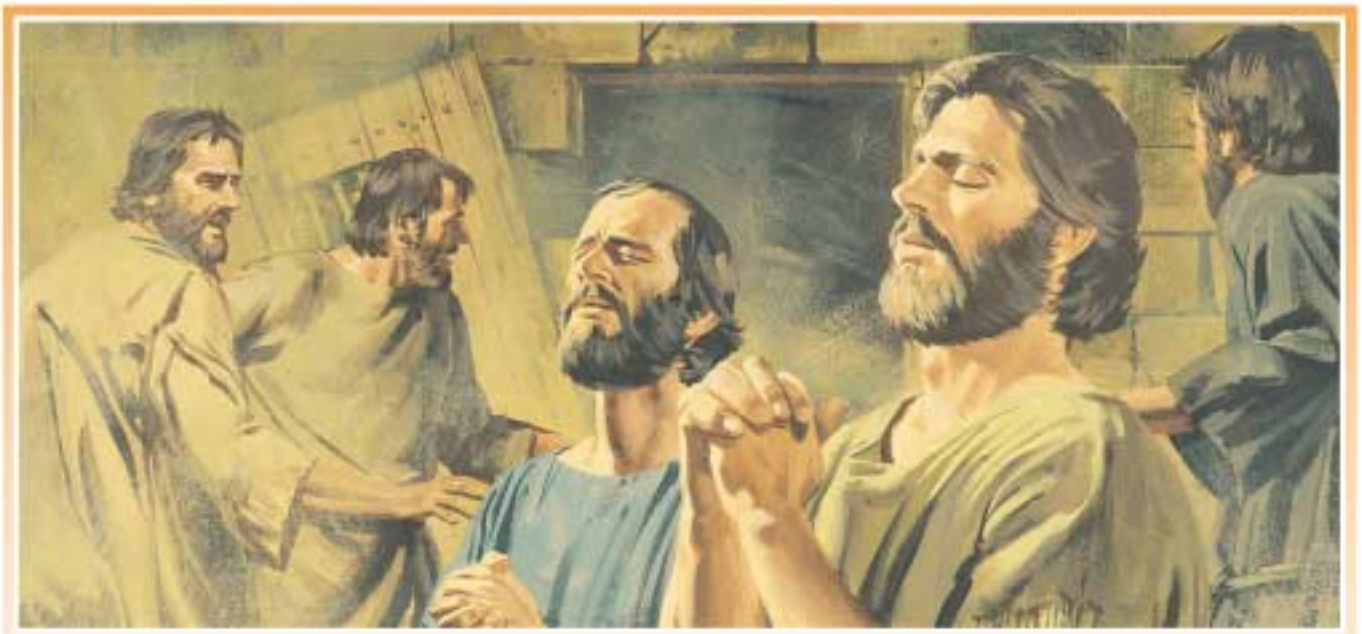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도시의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하게(시끄럽고 어지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6: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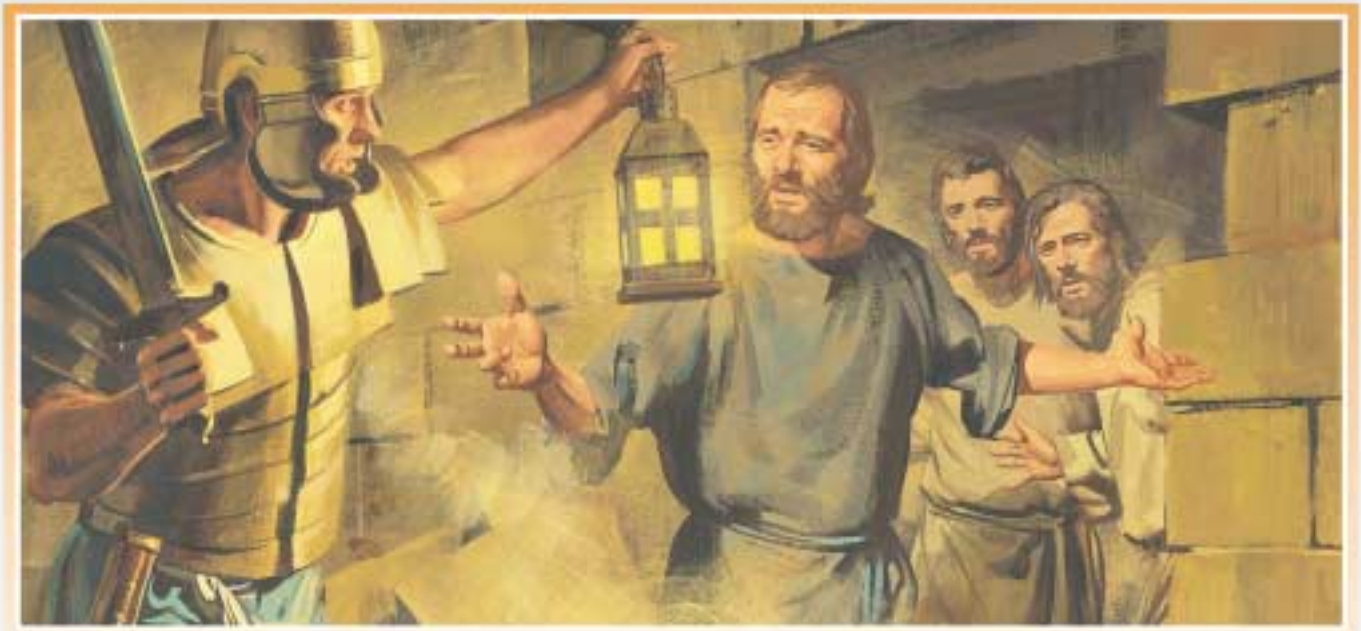
사람들은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6: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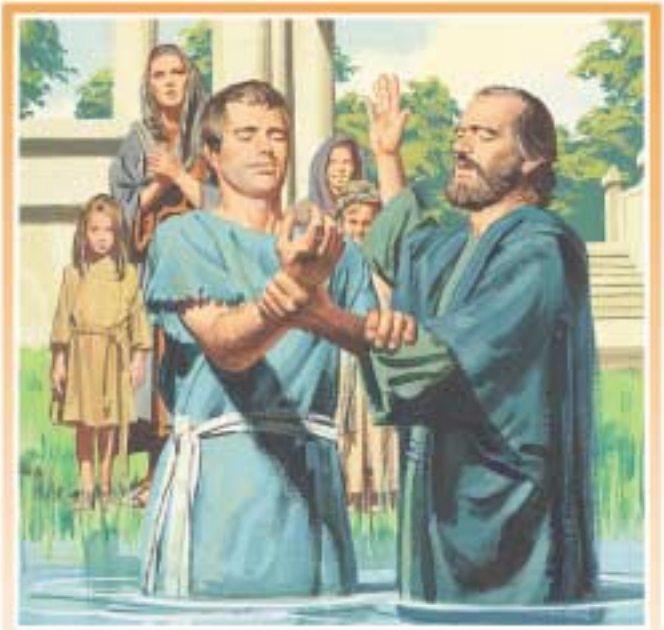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이 흔들렸으며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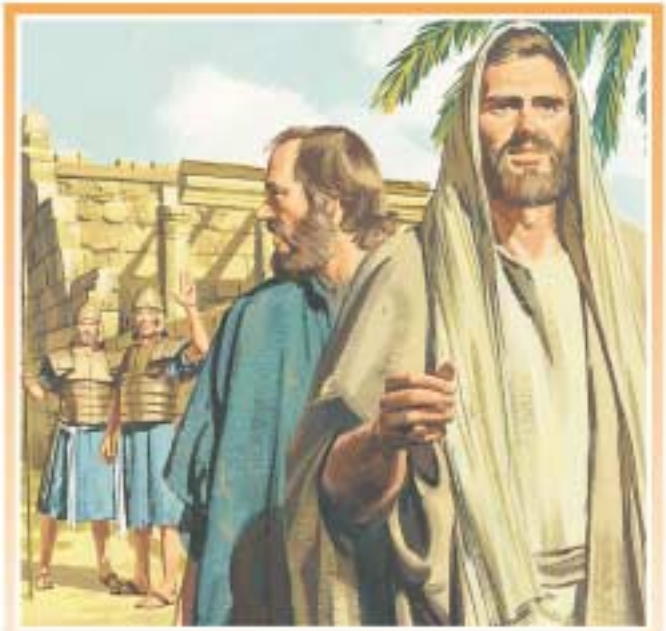
간수가 깨어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모든 죄수들이 그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간수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 문을 여셨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27~30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간수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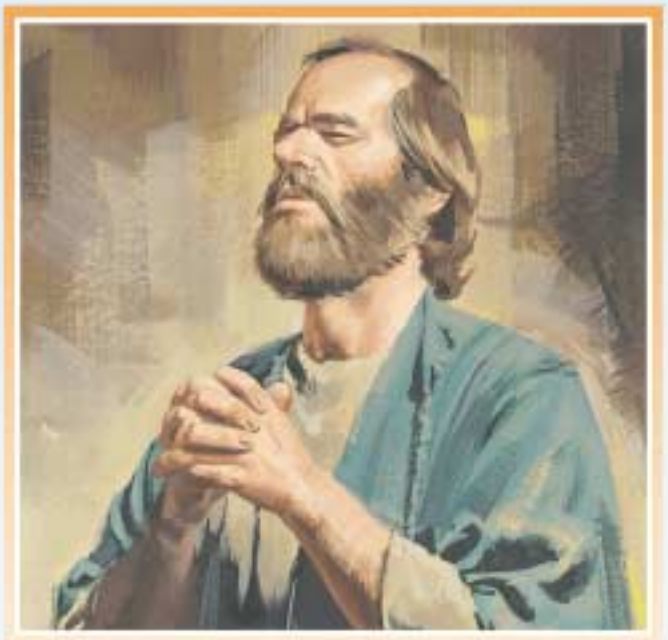
사도행전 16:31~33



그런 다음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상관들이 그들을 놓아 주었으며, 바울과 실라는 다른 성으로 가서 더 많은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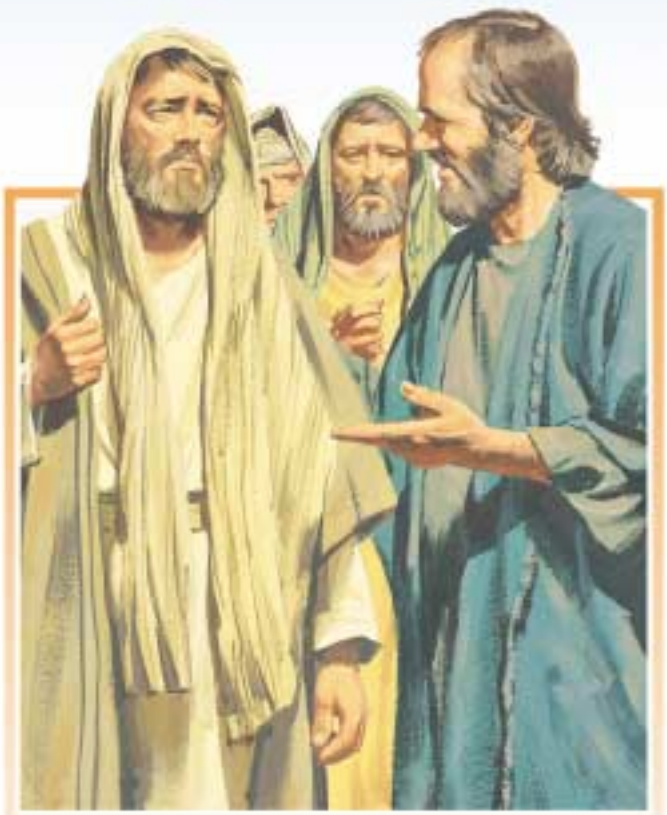
사도행전 16:34~40

바울이 성신에 순종하다



성신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곳에서 그는 옥에 갇힐 것이며 악한 사람들이 그를 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세주를 사랑했으며 선교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20:22~24; 21:1~15



바울은 친구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25, 28~32

그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들은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배 타는 곳까지 함께 갔습니다.

사도행전 20:35~38

온누리에

즐겁게 ♩ = 108–120

1. 온 누 리 에 손 에 손 을 잡 고 – 서 즐 거 웁 게 모 두 노 래
2. 온 누 리 에 손 에 손 을 잡 고 – 서 젊 은 힘 을 다 하 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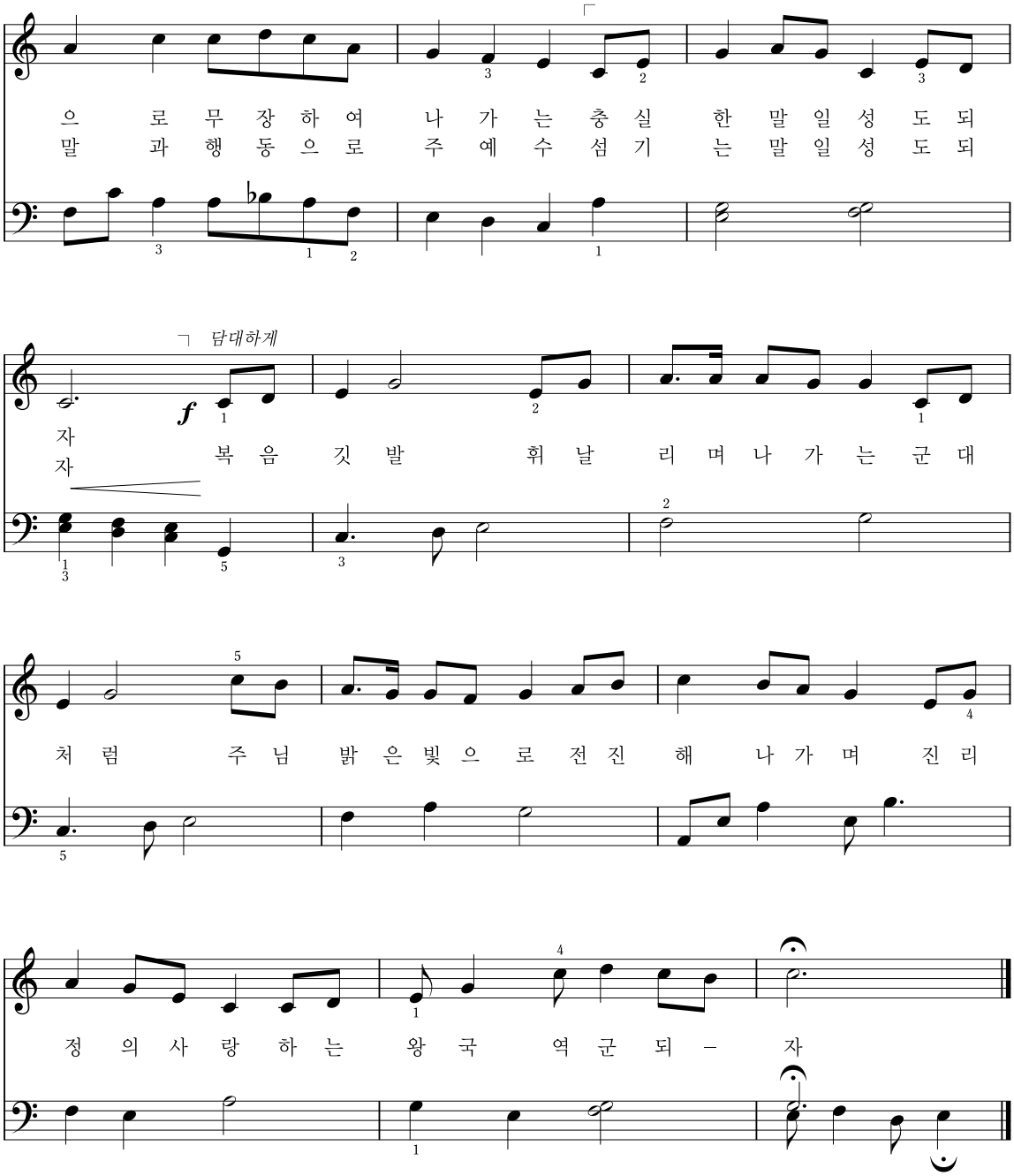
mf

부 르 – 자 우 리 복 음 빛 으 로 자 라 나 는 굳 건
른 사 – 람 도 와 주 며 온 마 음 을 다 하 여 하 늘

한 말 일 성 도 되 자 주 의 모 든 계 명 지 켜
아 버 지 일 행 하 자 모 범 되 게 생 활 하 여

나 가 – 는 씩 씩 하 고 슬 기 로 운 어 린 – 이 신 앙
올 바 – 른 길 을 걸 어 가 는 참 된 어 린 – 이 착 한

손에 손을 잡고서



작사(영어) 및 작곡: Janice Kapp Perry, 1938년생. ⓒ 2001 by Janice Kapp Perry. All rights reserved.
이 찬송가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그림: 델 파슨, *그리스도와 몰몬경의 어린이들*

예언자를 보고 싶어요

사라 브이 올즈
실화에 근거함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마태복음 7:7)

샐리는 여덟 살쯤 되었을 때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었다. 당시 예언자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1873~1970)이었다. 샐리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연차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는 항상 태버내클 뒷문으로 나와 큰 차에 올라탔다. 많은 사람들이 태버내클 밖에서 기다리며 그와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싶어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가 아니라 직접 그를 보고 싶어했다. 샐리는 예언자를 실제로 만나는 일이 분명 훌륭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삽화: 에밀리 케이녹스

샐리는 부모님에게 연차 대회 기간 중에 템플 스퀘어에 데려가 줄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면서 맥케이 대관장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갖고 있는 특별한 비밀이었다.

샐리의 가족이 태버내클 마당에서 연차 대회 오후 말씀을 듣는 동안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고 참으로 아름다웠다. 태버내클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대형 스피커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사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열려진 문가를 걸으면서 샐리는 태버내클 합창단과 총관리 역원들을 얼핏 보았다. "오늘이 그 날이야. 오늘이 그 날이야. 난 맥케이 대관장님을 만날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의 가슴은 무척이나 설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태버내클 뒤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그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다. 샐리는 키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맨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예언자를 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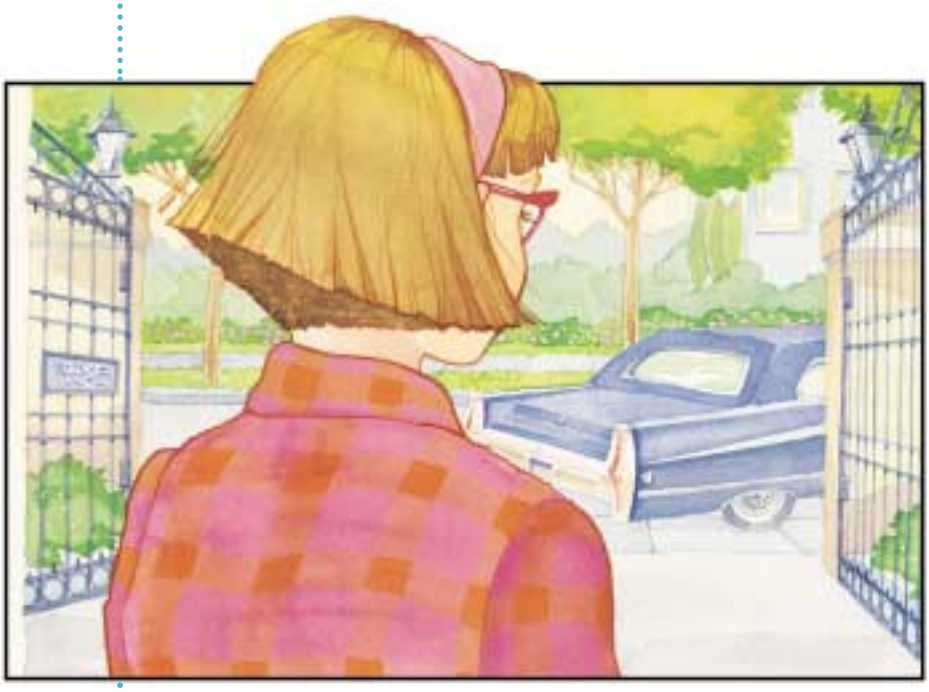
드디어 이리저리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녀는 무리의 맨 앞까지 나아갔다. 그 곳에는 줄이 연결되어 있어 태버내클과 그들 사이에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 곳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대로 번쩍이는 큰 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야."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곧 폐회 찬송 소리가 들렸다. "더 빨리 불러라! 더 빨리 불러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애가 탔다. 폐회 기도가 끝나고 반주자가

웅장한 태버내클 오르간을 다시 한번 연주했다. 이젠 정말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미는 바람에 그녀는 줄 쪽으로 약간 밀리고 말았다. 사람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 무리 쪽으로 몰려왔다.

큰 차가 움직이더니 약간 앞쪽으로 나왔다. 건물 뒤쪽에



있는 커다란 문이 열렸다.

그러나 샐리를 크게 실망시킨 것은 차가 움직였는데도 차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의 머리는 볼 수 있었지만 맥케이 대관장은 키가 큰 사람이었음에도 그를 잘 볼 수가 없었다. 맥케이 대관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샐리는 결코 그를 볼 수 없었다. 심지어는 그가 타고 있는 휠체어의 고무 바퀴조차 볼 수 없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혼자 예언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줄 아래로 빠져 나가 차를 향해 뛰어가고 싶었다. 차에 올라타서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였다. 문이 닫히고 큰 차는 서서히 도로를 향해 나아갔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는 가고 없었다.

샐리는 멍하니 서 있었다. 꿈은 사라지고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떠나고 그녀 혼자 남아서 맥케이 대관장이 떠난 후 땅에 떨어진 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 조용하게 속삭임처럼 들려 오는 생각이 떠올랐다. "도대체 그 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분을 직접 보고 그 분이 예언자이시라는 것을 나 스스로 알고 싶기 때문이야."라고 그녀는 거의 소리 내어 말할 뻔했으며 눈물이 찔끔 나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감미롭고 사랑스럽고 약간은 책망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 분이 예언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 그 분을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간구하는 것이다."

간구?

그것은 너무도 쉽고 간단했다. 마음속으로 짧은 기도의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가득 찼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차 속에 있던 그 분, 대회 동안 조용히 앉아 있던 그 분, 너무나 약해 보이던 그 분, 그녀가 보기에 영원히 살아온 것처럼 보이던 그 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의 예언자였다. 샐리는 그 분을 만날 필요가 없었다. 예언자와 악수를 나눌 필요도 없었다. 예언자가 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거나 말을 해 주셔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 분이 예언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예언자와 교회의 대관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알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간구하는 일이었다. ●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딸들을 그분의 영의 권세로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영은 그분께 무엇이든 여쭙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마음을 밝혀 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치 옥스 장로, "영으로 가르치고 배움", *리아호나*, 1999년 5월 22쪽.